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 사 학 위 논 문

단동십훈(檀童十訓) 활용에 관한 사례연구

- 만 0세 영아반 대상으로 -



2016년

HANSUNG
UNIVERSITY

한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유 아 교 육 전 공

전 종 연

석 사 학 위 논 문
지도교수 조 순 영

단동십훈(檀童十訓) 활용에 관한 사례연구

-만 0세 영아반 대상으로-

Case Study on Utilization of Dandongsibhun(檀童十訓)

-Focus on infant class under 1 year-



2016년 6월 일
HANSUNG
UNIVERSITY

한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유 아 교 육 전 공

전 중 연

석 사 학 위 논 문
지도교수 조 순 영

단동십훈(檀童十訓) 활용에 관한 사례연구

-만 0세 영아반 대상으로-

Case Study on Utilization of Dandongsibhun(檀童十訓)

-Focus on infant class under 1 year-

위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6월 일

한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유 아 교 육 전 공

전 중 연

국 문 초 록

단동십훈(檀童十訓) 활용에 관한 사례연구

- 만 0세 영아반 대상으로 -

한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

전 종 연

본 연구는 만 0세 영아반 교사의 단동십훈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 해당 학급의 단동십훈 활용에 관한 사례연구를 통해 교사의 인식 변화, 단동십훈 활용에 대한 영아의 반응, 단동십훈 활용과정의 개선점을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 현장 및 배경은 서울시 노원구 소재의 가정어린이집 만 0세 영아 5명과 담임교사인 J교사와 S교사가 참여하였으며, 자료의 수집은 2016년 4월 4일부터 2016년 5월 13일까지 6주 동안 연구자의 참여관찰, 참여교사 심층면담, 참여교사 관찰일지 등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수집된 자료는 분석적 귀납법을 사용하였으며,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참여자 검토, 전문가 및 동료 연구자의 검증을 거쳤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참여교사가 인식한 단동십훈의 장점은 첫째, 영아들의 발달에 맞는 신체활동을 제공함으로써 성장발달에 도움을 준다. 단동십훈의 열 가지 동작에는 대근육 운동, 소근육 운동, 균형감각, 여러 기관의 협응 등 다양한 운동적 요소가 들어있으며, 인지발달, 의사표현능력 등에 도움이 된다. 둘째, 단동십훈은 동작중심 놀이의 즐거움과 교사의 동작을 따라하는 모방행동, 교사-영아간의 신체접촉을 유도하는 놀이로서 영아들이 교사와 신뢰감을 형성하고 어린이집 환경에 적응하는데 긍정정적인 역할을 한다. 셋째, 단동십훈은 그 자체로서 하나의 놀이가 되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확장 활동을 유도하여 놀이를 더 즐겁게 한다. 또한 영아들을 재우거나 달래줄 때 노래와 함께 더욱 편안하게 설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특히 단동십훈의 노래에는 아이가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기를 기원하는 뜻이 담겨있어 더욱 의미가 있다.

단동십훈에 대한 영아들의 반응은 아이들마다 각기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걸음마 단계를 준비하는 영아들은 다리에 힘을 주고 균형감각을 익히는 ‘섬마섬마’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어린이집 이용 기간에 따른 반응은 10개월의 어린이집 경험이 있는 원아보다는 신입원아들이 더 관심을 보이고 잘 따라하였다. 어린이집 경험이 있는 원아는 기존에 교사가 불러주던 노래나 놀이에 더 관심을 보였다. 또한 시각적인 모방행동을 요구하는 동작보다 교사의 신체적인 도움이 있는 동작을 빨리 숙지하였으며, 일부 동작의 경우 단동십훈 노래보다 동요 활용이 더 효과적이었다.

단동십훈 활용에 있어서 고려할 점으로는 첫째, 영아의 일상생활에서 반복적이며 다양한 놀이를 활용해야 한다. 둘째, 영아의 특성과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적용해야 한다. 셋째, 가정과의 연계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교사와 학부모간의 신뢰를 형성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연구의 결과를 보면, 단동십훈이 영아-부모와의 관계뿐 아니라 영아-교사와의 관계에서도 유용한 놀이방법이며 교수법이 될 수 있음을 말해준다. 0세 영아반 교사들은 단동십훈을 활용함으로써 영아들을 보다 잘 이해하고, 신뢰를 형성하여 어린이집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단동십훈의 활용에 있어서 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영아들의 특성과 상황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반영하기 위한 교사들의 지속적인 노력과 반복적인 적용이 필요하며, 가정과의 연계가 중요하다. 또한 단동십훈을 도입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교사대상으로 교육지원과 연수 등의 지원책들이 필요하다.

【주요어】 단동십훈, 전래아기놀이, 전통육아, 생태유아교육, 전통놀이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문제	4
II. 단동십훈의 이해	5
1. 단동십훈의 개념	5
2. 전래아기놀이와 단동십훈	9
3. 단동십훈의 특징	13
1) 영아 성장 발달 시기에 따른 육아법	14
2) 편안함과 즐거움을 주는 놀이	16
3)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놀이	18
III. 연구방법	20
1. 사례연구	20
2. 연구절차	20
1) 사전 준비	20
2) 단동십훈의 적용 및 자료 수집	21
3. 연구 현장 및 연구 참여자	22
4. 단동십훈 적용 및 고려할 사항	24
5. 자료수집	25
1) 참여관찰	26
2) 심층면담	26
3) 연구 참여자 관찰일지	28
6. 자료분석 및 해석	28
IV. 연구결과	30

1. 단동십훈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변화.....	30
1) 단동십훈에 대한 교사들의 사전 인식	30
2) 단동십훈의 활용과정	32
3) 교사인식의 변화	38
2. 단동십훈 활용에 따른 영아들의 반응	44
1) J교사 - 정○○, 하○○, 최○○	44
2) S교사 - 한○○, 안○○	46
3) 단동십훈 활용과정의 특징	47
3. 단동십훈 활용에서 고려할 점	49
1) 일상에서 반복적이며 다양한 놀이 활용	49
2) 영아의 특성과 상황에 대한 이해	51
3) 가정과 연계	52
V. 논의 및 결론	55
1. 결론 및 논의	55
2. 제언	59
◎ 참고문헌	61
◎ 부록	65
<부록 1> 연구 참여 동의서	
<부록 2> 참여교사 관찰 일지 예시	
<부록 3> 연구자 관찰 일지 예시	
<부록 4> 면담 가이드라인	
◎ ABSTRACT	70

표 목 차

<표 1> 연구일정	21
<표 2> 별빛반(0세반) 영아의 배경	23
<표 3> 별빛반(0세반) 담임교사의 배경	23
<표 4> 영아의 성장 발달시기에 따른 단동십훈의 활용	24
<표 5> 협의일정 및 협의내용	27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오늘날 우리 사회는 맞벌이 부모라는 개인적인 이유와 조기에 유아교육시설에 입소하는 사회적인 분위기로 인해 어린 나이의 영아들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계기는 급속한 산업사회로의 이행에 따른 사회적 변화로 취업모의 증가와 함께 가족구조의 핵가족화, 저출산으로 인한 가족의 소규모화, 이혼율의 급증 및 한 부모가정의 증가, 빈곤가정의 증가 등 사회적 현상과 관련이 있다(강순원 외, 2011). 보건복지부 「보육통계」에 따르면 어린이집 이용 아동수는 2013년 12월 현재 1,486,980명으로 2000년 686,000원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전체 어린이집 수 또한 2013년 12월 현재 43,770개소로 2000년 19,276개소 대비 2.3배가 증가하였다. 무상보육이 실시된 2012년에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수가 전년대비 10.28%로 급속한 증가를 보였으며, 이 중 영아는 전년 대비 21%나 증가하여 무상보육으로 인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의 영아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만 0~2세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율은 2002년 11.8%였으나, 무상보육이 실시된 2012년에는 63.0%로 증가하였으며, 2014년에는 66.1%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보건복지부, 2015). 이에 따라 영아들의 삶속에서 어린이집은 점차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고 영아들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영아기는 발달의 여러 영역에서 급속한 성장을 이루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엎드리고, 뒤집고, 기고, 앉고, 걷게 되는 신체발달과 간단한 어휘를 말하게 되는 언어발달, 그리고 부모와 애착관계를 형성하는 사회성 발달이 이루어진다(김경혜 외, 2012). 또한 주변 환경과의 경험을 통해 상호작용하며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하게 되는 시기로 주변 환경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시기이다. 한 가정에서 태어나 가족성원들과 사랑, 관심, 애착, 돌봄, 미움, 질투 등과 관련된 다양한 감정과 행동을 교환하게 되며, 그러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신체적 성장과 정서적 발달을 이루어 나가게 된다. 그러므로 가족이 영유아와

의사소통하고 관계를 형성하는 방식과 가족이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사랑과 돌봄의 수준은 영유아의 발달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이원숙, 2005). 따라서 하루 중의 많은 시간을 가족과 떨어져서 어린이집에서 생활하게 되는 영아들에게 신체적, 정서적 양육을 제공하는 보육교사는 부모의 역할 못지않게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위와 같이 영아기의 중요성과 어린이집 이용률 증가라는 현 사회의 특성을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집의 ‘0세반’ 영아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대표적인 전래아기놀이인 ‘단동십훈(檀童十訓)’을 적용하고, 이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해 유아교육시설에서 전통육아법의 교육적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단동십훈은 단군시대부터 우리 조상들이 돌도 안 된 어린 자손들에게 훈계하던 육아법이라고 전해지지만, 언제 누가 만들었는지, 어떤 자료들을 통해서 어떻게 전해져 왔는지는 분명하지 않다(임소영·김은주, 2010). ‘도리도리, 짹 짹, 잼잼, 곤지곤지’ 등과 같이 우리 조상들의 생활경험 속에서 만들어지고 오늘날까지 전승된 전래아기놀이로서 아기가 태어나 누워있을 때부터 노래를 부르며 함께 동작을 하는 놀이이다. 이러한 단동십훈은 부모와 영아가 함께 상호작용하면서 아이의 신체, 언어, 정서 등의 발달을 제공하는 측면이 있는 과학적인 양육방법이다(김주현·박찬옥, 2011; 김광호·조미진, 2012). 우리나라 전통사회에서는 단동십훈과 같이 갓 태어난 아기를 위한 놀이를 통해 실내 생활의 단순함을 극복하고, 생활에 즐거운 변화를 제공하면서 성장발달을 촉진시켰다(유안진, 1986). 이러한 놀이는 신체의 일부가 그 명칭과 함께 동원되어 감각운동과 동작훈련을 하는 기능놀이였으며, 변별력이 높은 단순한 어휘 반복으로 아이의 점진적 언어발달과정에도 적합한 놀이였다.(유안진, 1990). 단동십훈은 놀이와 양육자의 일치되고 조화로운 관계에 기초한다. 양육자가 노래와 함께 아기와 눈을 마주치며 안아주고, 토닥여 주고, 흔들고 지지해주는 형태의 놀이방법은 아기에게 신체적 접촉으로 인한 편안함과 즐거움을 제공한다. 이러한 신체접촉을 통한 상호작용이 아기의 안정 애착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안지애, 2002; 이경희, 2012). 이러한 신체적 접촉을 통한 상호작용은 아기가 태어나서 걸을 수 있을 때까지 각 발달 단계에 맞춰 눈에서 목, 다리로, 윗몸에서 아랫몸의 순서로 영아와 놀이를 하면서 온몸으

로 나아가는 통합적인 신체발달의 흐름을 따르고 있다(임소영·김은주, 2010).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래아기놀이인 단동십훈은 영아가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나길 기원하는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놀이이다. 또한 영아와 양육자가 일상생활 중에 특별한 놀이도구 없이 일대일로 놀이하는 형태인 단동십훈은 영아의 일상생활과 쉽게 연계될 수 있는 특성이 있다. 단동십훈의 이러한 사회문화적인 적합성과 영아의 성장단계에 따른 우수한 놀이특성으로 인하여 유아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요구된다.

지금까지 영아를 중심으로 한 단동십훈에 관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단동십훈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김주현과 박찬옥(2011)은 단동치기 십계훈의 교육관을 분석하고 유아교육적 의미를 고찰하여 전통유아교육의 정립을 위한 기초연구를 제시하였고, 이경희(2012)는 단동치기 십계훈을 영아의 신체발달에 적합하고 양육자와의 애착과 유대감을 형성하는 과학적인 전통적 양육법으로 부모와 자녀간 관계중심의 놀이 방향을 모색하였다. 이애란(2014)는 단동치기 십계훈이 놀이중심 자녀양육방법이며, 영아의 정서발달과 애착형성을 강화하는 상호작용의 방법, 영아의 신체발달을 자극하고 부모와 역할을 강화하는 방법 등 유아교육적 의미를 연구하였다. 이와 같이 단동십훈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교육적 의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부모와의 관계에서 고찰하였다. 그 외 2012년 EBS 다큐프라임의 ‘오래된 미래, 전통육아의 비밀’ 방송 후 출간된 단행본(김광호·조미진, 2012)이 있다.

단동십훈이 지니는 교육적 의미를 밝히는 지금까지의 이론 연구는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지만, 이 활동을 실제 적용하였을 때 어떤 의미와 가치, 또는 한계가 드러날 수 있을지에 대한 실제적인 연구는 지금까지 찾아볼 수 없었다. 특히 영아가 주로 부모와 관계를 형성하였던 과거와 달리, 어린이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현대 영아들의 특성을 바탕으로 한 연구, 즉 단동십훈을 중심으로 영아와 교사간의 상호관계에 대하여 밝힌 연구는 전무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집의 영아를 대상으로 하여 단동십훈이 교사와 영아들에게 어떠한 교육적 영향을 미치는지 고찰해 보고자 한다. 또한 단동십훈을 통해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육아방식의 원리를 생각해보고 유아교육기관에서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연구문제

어린이집에서 교사-영아간의 단동십훈 활용에 관한 사례를 통해, 현장 적용 및 고려할 점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1> 참여교사의 단동십훈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어떠한가?

<연구문제2> 단동십훈에 대한 영아의 반응은 어떠한가?

<연구문제3> 단동십훈 활용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II. 단동십훈의 이해

1. 단동십훈의 개념

단동십훈은 ‘단동치기 십계훈(檀童治基 十戒訓)’의 줄임말로, 단동치기(檀童治基)는 단군왕검의 혈통을 이어받은 아기들에게 훈시에 따라 기초를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며, 십계훈(十戒訓)은 어린 자손들에게 훈교(訓敎)하던 열 가지 훈치(十訓治)를 말한다(황우연, 1988). 그러나 단동십훈이 오랫동안 전통적인 양육방식으로 전해내려 왔으나, 이에 관한 원문은 찾아볼 수 없어 언제, 누가 만들었는지, 어떻게 전해내려 왔는지 분명하지 않으며, 전하는 이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고 쓰이는 한자 또한 다르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예 중에 하나로 ‘불아불아’, ‘시상시상’, ‘도리도리’, ‘지암지암’, ‘곤지곤지’, ‘섬마섬마’, ‘업비업비’, ‘아함아함’, ‘ 짹짹 짹짹’, ‘질라아비훠훠’를 들 수 있다(임소영·김은주, 2010; 임재택, 2011).

단동십훈은 안명선(1962)의 ‘단군(檀君)의 십계명(十誡命)’에서 처음 찾아볼 수 있는데, 어린아이들을 달래고 놀리는 단순한 행동에도 어리석은 백성을 가르치고 경계시키는 교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며 열 가지 훈치를 소개하고 있다. 또한 ‘단동치기 십계훈(檀童治基 十戒訓)’이라는 용어는 황우연(1988)의 ‘천부(天符)의 맥(脈)’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안명선의 ‘단군의 십계명’과는 열 가지 훈치의 종류와 내용, 쓰이는 한자가 다른 모습을 보인다.

안명선의 ‘단군의 십계명’은 ①부라부라(弗亞弗亞), ②시상시상(侍想侍想), ③도리도리(道理道理), ④지암지암(持闇持闇), ⑤곤지곤지(坤地坤地), ⑥섬마섬마(西摩西摩), ⑦어비어비(業非業非), ⑧아함아함(亞合亞合), ⑨ 짹짹 짹짹(作作弓作作弓), ⑩질라라비 훠훠(啞哪呵備 活活議)이다. 반면 황우연의 ‘단동치기 십계훈’은 ①불아불아(弗亞弗我), ②시상 시상 달궁(侍上 侍上 達宮), ③도리 도리(道理 道理), ④짹짹, 지암((攢攢, 指庵), ⑤곤지곤지(昆持昆指), ⑥질나비 훠훠((疾那腓, 疾羅), ⑦ 짹짹(作綽窮, 作九宮), ⑧섬마섬마 용타(贍摩贍摩 庸訖), ⑨어화 둥둥(啞和, 嘯和), ⑩자장자장(自獎自獎)을 열 가

지 훈시로 설명하고 있다.

이후, 김백용(2000)은 ‘선기유아체조’로, 김정일(2005)은 ‘선기도법’으로 재 해석하였으며, 박병각(2000), 이승헌(2005), 정진홍(2008)은 고유의 전통육아 교육법으로 소개하면서 알려지게 되었다. 특히 김숙경(1997)은 ‘육아속(育兒俗)’으로 전해져 내려오던 단동십훈을 전래놀이노래로 소개하면서 널리 연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김주현·박찬옥(2011)이 정리한 내용을 중심으로 단동십훈의 열 가지 훈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훈 : 불아불아(弗亞弗亞)

한자 그대로 해석하면 아니 불(弗)과 버금 아(亞)로 ‘버금이 아니다’, 즉 으뜸의 뜻으로 아기를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로 보았다. 아기를 하늘, 하느님과 같은 존재로 보고, 만물의 근원인 하느님과 같은 생명력을 갖고 살기를 기원하는 훈시이다. ‘불아불아’는 ‘부라부라’, ‘부와부와’ 등으로도 불린다. ‘부라부라’는 ‘어린 아기가 두 다리를 번갈아 오르내리도록 하라는 뜻으로 내는 소리나 그 동작’을 나타내는 우리말의 감탄사와 명사이다. ‘부와부와’는 ‘흔들흔들’의 고어라고 한다(이경희, 2012). 엄마가 일어선 아이의 허리를 양 손으로 잡고 좌우로 흔들어줌으로써 다리에 힘을 길러 혼자 설수 있도록 하는 동작이다(김광호·조미진, 2012).

제2훈 : 시상 시상 달궁(恃上恃上 達宮, 達穹)

‘시상시상(侍想侍想)’, ‘달궁달궁(達窮達窮)’이라고도 하며, 위(上)를 모실 줄 알 때 하늘(宮)에 이르게 된다는 뜻이다. 하느님을 모시는 아기로서 하느님과 부모님께 순종하여 살라는 가르침이며, 한자가 다른 ‘시상시상(侍想侍想)’은 아기의 몸이 곧 작은 우주이니 우주의 섭리에 순응하라는 의미로 매사에 조심하고 몸을 귀히 여겨 함부로 하지 말라는 뜻이다(김주현·박찬옥, 2011). 아이를 앉혀놓고 두 팔이나 허리를 잡고 앞뒤로 흔드는 동작이다(김광호·조미진, 2012).

제3훈 : 도리도리((道理道理)

도리에 맞게 살 것을 가르치는 훈시이다. 천지의 만물이 하늘의 도리로 생겼으니, 머리를 좌우로 돌려 좌우를 살펴 사리에 맞게 살아가라는 뜻으로 아이의 머리를 좌우로 흔드는 동작이다(김주현·박찬옥, 2011). 지역에 따라 ‘두리두리’, ‘도래도래’, ‘마니마니’라는 음률로 전해지기도 한다(노동은, 1984).

제4훈 : 찹찹(攢攢)

손을 폈다 쥐었다 하는 동작으로 우주의 이치, 하느님의 뜻을 깨달으며 살라는 가르침이다. 세상의 혼미한 것(闇)을 가려서 깨달으라는 뜻의 ‘지암지암(持闇持闇)’, 우리말 ‘손을 쥐다’의 ‘죄암죄암’, 만물의 근본을 힘있게 쥐어라 의 ‘지암(指庵)’, 땅의 오행을 알라는 ‘지암지암(地암地암)’ 등이 있다(김주현·박찬옥, 2011).

제5훈 : 곤지곤지(坤地坤地)

왼손바닥을 펴게 한 다음 오른손 검지로 왼손 바닥을 짚는 동작으로 땅의 이치를 본받아 음양의 조화를 이루며, 덕을 쌓으라는 의미이다(김광호·조미진, 2012). ‘곤지곤지(昆持昆持)’, ‘곤지건지(坤旨乾旨)’, ‘지로지로(指路指路)’ 등이 있으며, 공통적으로 하늘과 땅의 이치를 깨달아 만물을 포용하고, 바른 일, 참다운 일을 행하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김주현·박찬옥, 2011).

제6훈 : 섬마섬마 용타(贍摩贍摩 庸託)

‘섬마섬마’는 ‘몸을 연마하면 넉넉함이 있다’는 뜻이며, ‘용타’는 기특하고 장하다는 뜻이다. 아기가 스스로 일어서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니 옳은 일을 행하며 떳떳하게 살라는 가르침이며, 남에게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일어서 굳건히 살라는 의미도 갖고 있다(김주현·박찬옥, 2011). 엄마의 손바닥 위에 아이의 몸을 바로 세워 두 발을 올려놓은 다음, 아이의 엉덩이나 허리를 받쳐 아이의 다리 힘을 이용해 서도록 하는 동작이다(김광호·조미진, 2012). 지역에 따라 ‘따로따로’, ‘꼬노꼬노’라고 부르기도 한다(노동은, 1984).

제7훈 : 업비업비(業非業非)

하느님의 뜻(業)에 어긋나게(非) 행하지 않게 경계하고 조심하라는 말이다. 즉 아기가 해서는 안 될 것을 이르며, 하느님의 이치에 맞는 삶을 살라는 가르침이다(김주현 · 박찬옥, 2011). 양 팔을 뻗어 손바닥을 흔드는 동작으로 아기가 해서는 안되는 행동을 했을때 ‘애비애비’라고 하며 겁을 주었던 말의 근원이다(김광호 · 조미진, 2012).

제8훈 : 아함아함(亞含亞含)

손바닥으로 입을 모아 소리 내는 행동으로 두 손으로 ‘아(亞)’자 모양을 이루니, 천지좌우의 형국(亞)을 내 몸에 모시었다(含)는 의미이다(김주현 · 박찬옥, 2011). 즉 아기가 작은 우주임을 알리는 의미이며, 어린 시절 손바닥을 입에 대고 소리를 내며 재미있어 하던 놀이의 원형이다(김광호 · 조미진, 2012).

제9훈 : 짹작궁은 다양한 한자로 기록되어 있다.

‘짹작궁’은 두 손바닥을 마주쳐 소리를 내는 동작으로, ‘작장궁(作掌弓)’이라 하여 손바닥으로 활모양을 만들라(弓)는 의미이다. 궁(弓)은 파자법으로 태극, 하느님을 상징한다. 따라서 ‘짹작궁 짹작궁(作作弓 作作弓)’은 ‘하늘의 이치를 깨닫고 신에 이르라, 착한 마음을 만들라’는 의미이다. ‘짹작궁(作綽窮)’은 마음을 너그럽게 하다의 뜻을 지니고, ‘작궁작궁(作窮作窮)’ 또한 ‘마음을 동글게 하다’는 뜻으로 넉넉한 마음을 가질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짹작궁’의 훈시는 하늘의 이치를 깨달아 하느님의 뜻에 이르는 삶을 살라라, 그러기 위해서 마음을 넉넉히 하고 다른 사람과 한 마음을 갖도록 하라는 훈시이다(김주현 · 박찬옥, 2011).

제10훈 : 질나비(疾那俳)훽 훽

어떤 질병도 오지 말고 모두 훽훽 날아가 버리라는 뜻으로 아기의 심신이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는 훈시이다(김주현 · 박찬옥, 2011). 아이가 앉은 채로 두 팔을 날개처럼 양 옆으로 벌리고 흔드는 동작이다(김광호 · 조미진, 2012).

박병각(2000)과 황우연(1990)은 열 가지 훈시 중 ‘업비업비, 아함아함’ 두 훈시 대신 ‘어화(喲和) 둥둥’, ‘자장자장(自裝自裝)’을 포함시켜 단동십훈을 소개하고 있다. ‘어화(喲和) 둥둥’은 서로 화목하게 살아라는 뜻으로 춤을 추듯이 아이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동작이고, ‘자장자장(自裝自裝)’은 자연스럽게 자라라는 뜻으로 아기를 재울 때 토닥여주며 하는 말이다.

그러나 서정범(1996)의 우리말의 어원을 밝히는 연구에 의하면, ‘도리’는 ‘머리(頭)’라는 뜻으로 ‘도리도리’는 ‘머리’라는 말을 가르치면서 목운동을 시켰으며, ‘잼잼’은 ‘주먹’의 뜻으로, ‘곤지’는 ‘손’의 뜻을 가진 옛말이며, ‘불아 불아’는 ‘발’의 뜻을 지닌다고 하였다. 또한 ‘질나비’는 기러기의 다른 이름인 ‘길오라비’를 뜻한다. 즉 어린 아기들에게 말을 가르치면서 신체의 발육을 위한 운동을 시킨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안희진(2008)은 ‘곤지곤지, 도리도리, 짹짹, 까꿍’ 등은 아이들의 육아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우리말로 유사한 발음이 나는 한자로 음역하여 기록한 자료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임재해(2012)는 세간에 널리 알려진 전통 육아법이 왕족의 아기교육법이라는 ‘단동십훈’으로 일컬어지고, 단군왕검 때부터 전승되었다는 주장에는 근거가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과거로부터 전승되어온 전통양육법으로 그 가치는 충분하며, 교육학적인 체계화와 구체적인 적용이 연구되어야 할 부분이다.

2. 전래아기놀이와 단동십훈

전래놀이란 창작놀이 혹은 현대놀이와 대립되는 개념으로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모든 놀이를 말하며, 오래 전부터 내려오는 전통놀이와 외래 놀이 중에서 우리나라 놀이화된 놀이까지를 포함한다(김영주, 2006). 이 중 전통놀이는 옛날부터 민간에 전승되어 오는 여러 가지 놀이로서 향토색을 지니고 있으며,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고 놀이에 담겨있는 뜻이 건전하며, 조상의 얼을 이어주는 놀이이다(김경희, 1986). 우리 옛 어른들은 아기가 스스로 기고 앉고 서고 걷기까지 온갖 말과 노래와 놀이를 만들어 아이를 키웠으며, 아기와 함께 있을 때면 반드시 말과 노래가 따랐다(백창우, 2009). ‘곤지곤지, 짹짹, 도리도리, 잼잼’ 등과 같이 입에서 입으로,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내려오면서 민속 문화로 다양하게 전승되어 왔는데, 이러한 선조들의 육아 지혜가 담긴 전통육아법이 전래아기놀이이다(임소영·김은주 2010). 단동십훈은 태어나 말을 못하는 아기를 대상으로 ‘까꿍, 도리도리, 짹짹, 곤지곤지’ 등과 같은 동작과 소리가 어우러져 예로부터 전승되어져 온 놀이로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전래아기놀이이며 전통양육법이다.

선행연구를 통해 전래아기놀이의 종류를 살펴보면, 노동은(1984)은 아이가 태어나서 돌 전후 기간 동안 부녀자가 영아를 상대로 부르는 음악을 ‘영아음악’이라고 정의하였다. ‘꼬노꼬노, 음마음마, 짹짹, 짹짹, 곤지곤지, 도리도리, 질라래비, 둥개둥개, 불아불아, 달강달강, 섬마섬마, 소리개 떴다. 걸음마’ 등의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영아음악의 특징과 분석을 통해 영아들의 성장과 사회화 과정을 설명하였다. 또한 지역별로 노래말을 정리하였는데, 예를 들어 ‘꼬노꼬노’의 경우 ‘꼬네꼬네, 꼬아꼬아, 꼬노꼬노, 장사장사, 또루또루, 또또또또, 고네고네, 짹짹짹짹, 따로따로, 가둥가둥, 땀마땀마’ 등 지역마다 노래말이 달랐으며, ‘짹짹’은 ‘잠잠, 쥐암쥐암, 나니나니, 지암지암, 쪼막쪼막, 죄앰죄앰, 좌미좌미, 조매조매’ 등과 같이 다양한 노래 말로 전승되었다.

유안진(1986, 1990)은 영아음악을 ‘아기놀이’라 하고 유아교육적으로 체계화 시켰다. 태교(胎敎)단계(임태 전~출생), 감각 및 동작훈련단계(출생~3세경), 무릎학교단계(3세~5세), 자발적 학습단계(5세~7세), 성역할교육단계(7세~13세) 5단계로 나누었다. 2단계인 감각 및 동작훈련단계에 해당하는 아기들에게 단조로운 생활의 단점을 극복하고, 즐거운 변화를 제공하면서 발달수준을 고려한 아기놀이로 활용했음을 설명하고 있으며, 이 시기 아기놀이로 ‘도리도리, 짹짹, 곤지곤지, 짹짹, 고네고네, 따로따로, 불무불무, 목말타기, 단지팔기’ 등을 소개하고 있다.

김숙경(1997)은 황우연의 ‘단동치기 십계훈’을 소개하며, 구전 전래놀이노래의 발굴과 함께 노래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으며, 생후 100일 전후의 아기에게 목운동을 시키기 위해 ‘도리도리’를 시작으로, 아기가 성장함에 따라 적절한 동작훈련을 시켰음을 설명하고 있다. 영아기 전래놀이로 ‘도리도리, 짹짹, 곤지곤지, 짹짹, 고네고네, 둥개둥개, 불아불아, 따로따로, 방아야 방아야, 둥개둥개 둥개야, 깜빡과 반짝, 불 불 불어라’ 등을 소개하고 있다.

편해문(2002, 2005)은 전통적인 육아법은 ‘태교’, ‘잼잼에서 걸음마’, ‘밥상 머리와 무릎, 어깨너머’ 등으로 구분되며, 각 시기에 아이들의 발달단계에 따른 몸짓과 노래가 있었다. 이런 몸짓과 노래가 끊임없이 이어져 우리 민속 문화와 삶 속에 녹아있음을 말하고 있다. 아이 어르는 노래로 ‘쪽쪽기, 까꿍, 도리도리, 짹까꿍, 진진, 쪼막쪼막, 맘물레 맘물레, 헐레레비, 달강달강, 둥개야, 고네고네, 섬마섬마, 걸음마, 불미노래’ 등을 소개하고 있다.

안지애(2002)는 단동십훈의 내용과 전래놀이노래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영아기 전래놀이노래가 유아기나 아동놀이와 다른 점을 제시하고, 영아들의 놀이노래가 영아들에게 미치는 효과를 한의학적 측면으로 재분석하였다. 전래놀이노래로 ‘도리도리, 짹까꿍, 곤지곤지, 잼잼, 고네고네, 둥개둥개, 부라 부라, 방아야 방아야, 둥개 둥개 둥개야, 깜박과 뽀짝, 불불 붙어라, 자장가’ 등을 소개하였다.

모영오(2006)는 고창지역에 전승되어 온 영아음악에 대한 현장조사와 함께 음악적 특성과 영아 발달과의 관계, 그리고 영아기 이후 음악문화로 확대되는 과정에 대한 기초연구를 하였다. 영아 음악으로 ‘판대판대, 쥐암쥐암, 직계직계, 도리도리, 달꿍달꿍, 방ैया, 불무야, 질라레비 훨훨, 걸음마, 어화둥둥, 내 사랑, 자장자장’ 등을 소개하였다.

위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명칭이나 방법이 다양하고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전래아기놀이가 많이 있으며, ‘도리도리, 짹까꿍, 잼잼, 곤지곤지’ 등 단동십훈 동작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전래아기놀이는 아기의 성장 시기에 따른 놀이와 아기의 상황에 따른 놀이,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고 있다(임소영·김은주, 2010; 임재택, 2011). 첫째, 아기 성장 시기에 따른 놀이는 아기가 태어나면서부터 ‘쪽쪽기, 까꿍’과 같이 아기의 몸을 마사지 해주며 눈을 맞추는 교감행동의 놀이를 시작하였다. 아기가 성장하여 목을 가누는 시기가 되면 ‘도리도리’를 추가하여 목의 힘을 길러 주었고, 손을 움직여 놀 수 있는 시기가 되면 ‘짹까꿍, 잼잼, 곤지곤지’를 추가하였으며, 아기가 앉아 있을 수 있는 시기가 되면 ‘질라아비 훨훨, 맘물레 맘물레, 달강달강, 둥개야 둥개야’ 등 상체운동을 추가하였다. 이후 기어 다니는 시기가 되면 ‘음마음마’를 추가하였고, ‘꼬네꼬네, 따로따로, 불미불미’ 등 하

체운동을 추가하여 다리에 힘을 키워주었다. 아기가 혼자 설 수 있을 때부터는 ‘걸음마, 소리개가 떴다. 목말타기’ 등의 온몸운동을 추가하였다. 둘째, 아기의 상황에 따른 아기놀이는 아기를 업어줄 때는 ‘어부바’ 하고 업어주었으며, 배가 아플 때는 ‘할미손은 약손’ 하며 배를 어루만져 주었다. 아기가 다쳤을 때에는 ‘우리 아기 장사’, 배변 훈련을 시작할 때는 ‘단지팔기놀이’ 등과 같이 아기들의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상황에 따라 노래와 동작을 통해 놀이로 발전시킨 것이다. 이와 같이 단동십훈은 아기가 성장함에 따라 그 발달의 특성에 맞게 덧붙여지는 놀이이면서, ‘업비업비’와 같이 위험한 상황을 알려주고, ‘ 짹짹궁, 찹찹’ 등과 같이 아기를 달래주고 즐겁게 하는 전래아기놀이임을 알 수 있다

단동십훈은 연구자에 따라 아기놀이·유아놀이(유안진, 1986), 영아기 전래놀이노래(김숙경, 1997; 안지애, 2002; 엄정애, 2001), 아이 어르는 노래(편해문, 2003), 아이 어르는 소리(명현, 2002; 장은경, 2006), 전래아기놀이(임소영, 2009; 임소영·김은주, 2010), 전래놀이(김정희·유효순, 2011), 전래아기노래(김선경, 2015), 전래영아놀이(문원선, 2014), 영아음악(노동은, 1984; 모형오, 2006)등 연구 분야에 따라서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며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 외에도 여러 분야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전래아기놀이의 유아교육적 의미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임재해(2012)는 전통육아를 3단계 5갈래 교육방법으로 정리하였는데, 첫째 단계는 태교, 둘째 단계는 ‘어깨너머 교육’과 ‘짹짹궁 놀이 교육’, 셋째 단계는 ‘역할체험 교육’과 ‘밥상머리 교육’으로 구분하였다. 이 중 ‘짹짹궁 놀이 교육’으로서 아이의 정서적, 육체적 성장에 도움을 주는 교육효과를 발휘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임소영(2009)은 단동십훈을 포함한 전래아기놀이의 분석과 프로그램 시안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유아교육적 의미를 살펴보았다. 임소영·김은주(2010)는 전래아기놀이의 개념과 유형을 살펴보고 영아 교육적 의미로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과학적인 놀이, 태초의 편안함과 즐거움이 있는 일상 속에서 자연스러운 놀이, 물질이 아닌 정신이 전해지는 전통문화교육임을 시사하고 있다. 김주현·박찬옥(2011)은 고조선의 홍익인간사상과 인간관에 대해

여 고찰하고 단동십훈의 교육관과 유아교육적 의미를 분석함으로서 전통유아 교육의 정립을 위한 기초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애란(2014)은 전통사회의 생명 존중과 정신적 가치를 반영한 단동십훈을 여러 문헌을 통해 고찰하여 단동십훈의 긍정적인 기능과 효과를 도출해 내고, 현대의 자녀양육방법으로의 모색을 주장하고 있다.

영아의 애착형성과 사회·정성적 긍정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연구로, 김정희·유효순(2011)은 12개월 전후의 영아를 대상으로 전래놀이를 활용한 영아-어머니 상호작용프로그램으로 애착 안정성, 긍정적 사회·정서 능력 형성에 영향을 준다고 시사하고 있다. 또한 이경희(2012)는 단동십훈의 개념과 종류를 알아보고, 영아의 발달에 따른 특징을 분류하여 적용해봄으로서 영아와 양육자간의 애착증진에 미치는 의미를 살펴보았다.

기타 연구로, 장은경(2006)은 전통적인 육아음악을 아이 어르는 소리와 자장가로 나누고 음악적 분석을 통해 음악 교육적 가치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며, 김선경(2014)은 만 1세 영아들에게 전래아기노래와 전래동요를 경험하게 함으로서, 창의력과 상상력을 길러주고, 편안함과 안정된 마음, 그리고 즐거움을 갖게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문원선(2014)은 전래영아놀이와 연계한 뇌 기반 영아프로그램 적용을 통해 일반 영아프로그램보다 신체운동발달, 의사소통발달에 효과적임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통해 단동십훈이 돌 전후의 영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래아기놀이 형태로 자연스럽게 전승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단동십훈의 명칭이나 방법이 다양하고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영아들의 성장 시기에 따라 신체운동과 감각운동을 시키는 운동법이었으며, 아기들의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상황을 노래와 동작을 통해 놀이형태로 가르쳤다. 또한 양육자와의 신체적 접촉을 통한 교감과 모방행동으로 애착 안정성과 사회 정서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과학적인 양육법임을 알 수 있다.

3. 단동십훈의 특징

단동십훈에 관한 기존 연구를 토대로 단동십훈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영아의 성장 발달 시기에 따른 육아법, 둘째, 영아에게 편안함과 즐거움을 주는 놀이, 셋째,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놀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영아 성장 발달 시기에 따른 육아법

우리나라 전통육아에서 영아기 교육은 출생 후 약 2년(우리나라 나이로 약 3세) 까지 이루어졌으며, 영아의 감각과 동작을 훈련하는 것이 양육의 주된 활동이었다(유안진, 1990). 이 시기의 영아는 ‘성장 급등(growth spurt)’ 현상을 보이는데, 신체발달에는 일정한 방향성을 지니고 있다. 첫째, 머리에서 몸, 하체로 진행된다. 둘째, 중추에서 말초로 진행된다. 셋째, 대근육 운동에서 미세 운동으로 발달한다. 이에 따라 운동발달도 신체발달과 같은 순서로 발달되게 되는데, 영아는 먼저 목을 가누는 후, 뒤집고, 앉고, 붙잡고 서고, 걷는 등의 순서를 보인다(김영주, 2006).

단동십훈의 신체활동은 목운동, 팔, 서기 및 다리운동, 상체운동, 전신운동, 눈과 손의 협응 등으로 요약된다. 목 가누기, 팔 다리를 사용하는 대근육 운동, 서기 등과 같은 움직임은 돌 이전의 영아기에 보여 지는 대표적인 신체활동이다. 유안진(1990)은 전통사회의 아기놀이를 영아의 동작훈련프로그램으로 신체발달과 어휘발달에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예를 들면 이제 태어난 영아는 대부분의 생활을 누워서 한다. 이 시기에 누워서 생활하는 영아에게 ‘도리도리’라는 언어적 지시와 함께 놀이를 돕는 양육자는 자신의 목을 흔들어 시범 행동을 보이는데, 이때 아기는 ‘도리도리’라는 쉽고 간단한 어휘의 음률에 맞추어 시범행동을 모방한다. 이때 양육자가 아기에게 웃어주거나 긍정적인 강화를 제시해주면, 아기는 더욱 재미있고 자신감 있게 학습하게 된다. 이후 영아는 ‘도리도리’라는 언어적 지시만으로도 혼자서 이 놀이를 즐기며 목운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짹짹’은 영아의 ‘손과 눈의 협응’ 이라는 발달과업을 성취시키는 초보적 과정이며, ‘곤지곤지’는 ‘ 짹짹’ 이후에 손과 눈의 협응이 이루어진 다음에 세련된 동작을 훈련시키는 한 단계 발전된 놀이이다. 이는 손가락의 소근육 운동의 발달을 촉진 시키는 것과 ‘곤지곤지’, ‘뽕뽕’과

같은 놀이와 결합되어 손으로 쥐기, 잡기 등의 발달과업에 도움이 된다. '시상 시상'은 영아가 앉을 수 있는 시기가 되면 영아의 겨드랑이를 잡고 앞뒤로 흔들면서 노래를 불러주는 놀이이다. 이후 영아가 일어설 수 있으면, 서있는 상태의 영아 양손을 잡고 앞뒤로, 좌우로 흔들어 준다(불아불아). 이 놀이는 영아의 허리, 옆구리 운동, 온몸운동, 다리에 힘을 주어 서고 걷는 과업에 대비시켜준다. '섬마섬마'는 아기를 어른의 손에 몇 초 동안 올려놓고 '섬마섬마'라고 발음해 주는 놀이이다. 이는 아기가 일어서는 발달과업을 돕는 목표의 놀이로서 아기의 다리에 힘을 올려 주게 하여 일어서는 과업을 보다 쉽게 돕는다. 이후 아기를 방의 구석이나 벽면에 의지해서 몇 초 동안 세워두는 것과, 그냥 의지할 곳 없이 방바닥에 아기 혼자 세워 두는 '따로따로' 놀이를 할 수 있다. 이렇듯 단동십훈은 눈→목→팔→다리, 윗몸→아랫몸의 순서로 신체발달의 흐름에 따라 통합적인 형태인 온몸 운동으로 나아가는 전래아기놀이이다(임소영·김은주, 2010).

이정희(2012)는 영아의 성장 발달시기에 따라 목을 가누기 시작하는 시기, 손을 움직여 놀기 시작하는 시기, 앉을 수 있는 시기, 기어 다니기 시작하는 시기, 일어서는 시기까지 다섯 단계로 나누어 단동십훈의 활용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영아가 100일 정도 되면 놀이를 할 수 있고, 상호작용을 시작하는 시기로 양육자와의 정서적 유대에 대한 즐거움을 개발하기 시작한다(Wallin, 2007). 주위를 돌아보며 소리에 반응하고, 스스로 목을 가눌 수 있게 된다. 이 시기에 '도리도리'는 양육자에 대한 모방운동으로 기억능력과 운동능력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생후 6개월 정도가 되면 초보적인 시각과 운동기능 간의 협응이 가능하고, 손을 뻗어 물건을 잡을 수 있는 시기로 반사운동이 사라지고 의도적인 운동이 나타난다(권중돈·김동배, 2009). 또한 낯선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며, 내적작동모델을 형성하게 된다(Wallin, 2007). 이 시기에는 손을 이용한 놀이인 ' 짹짹궁, 짹짹, 곤지곤지, 아함아함'은 눈과 손과 입의 협응을 돕고, 양육자와의 모방행동과 신체접촉을 통해 애착안정성에 도움을 주며, 청각과 리듬감각을 효율적으로 자극하게 된다. 영아가 7~8개월이 되면 혼자서 앉아 있을 수 있게 되는데, 이는 등과 허리근육을 조절할 수 있고, 양팔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 시기에 ‘시상시상, 질라아비 훨훨’ 놀이를 할수 있는데, 평형감각을 길러주고 어깨, 목, 팔, 허리 등의 윗몸 근육의 발달을 도와준다. 영아가 8~12개월이 되면 기어 다니기 시작하는 시기로, 주변에 대한 탐색이 시작되고 놀이를 통한 집중력과 사고력이 높아지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섬마섬마, 업비업비’를 추가 할 수 있다. ‘섬마섬마’는 다리 힘을 이용해서도록 하는 동작으로 다리의 힘을 길러주며 균형 잡기를 통해 걸음마 연습을 하게 된다. 또한 ‘업비업비’는 위험한 상황에 대한 인식 능력을 키워준다. 영아가 일어나서 몸을 움직일 수 있는 10~12개월이 되면 팔다리를 따로 움직일 수 있고, 시야가 넓어 지게 된다. 이때 ‘불아불아’는 놀이를 통해 균형을 잡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려 줄 수 있다.

이렇듯 단동십훈은 영아가 태어나서 걸음마 하기까지 성장함에 따라 놀이를 전개하게 되는데, 이는 우리 선조들이 경험을 통해 아기의 성장에 맞추어 각 시기마다 구체적으로 어떤 놀이를 할 수 있고, 즐거워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2) 편안함과 즐거움을 주는 놀이

보울비(Bowlby, 1969)는 출생 직후부터 바로 애착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애착 대상과 상호작용이 있어야 애착이 이루어지며, 다음의 네 단계를 거쳐 발달된다고 하였다(김혜경 외, 2005). 1단계는 출생부터 8주부터 12주까지로 상대방과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려는 애착의 전조 행동으로 울기, 빨기, 미소 짓기, 움켜잡기 등을 보이는 단계이다. 2단계는 약 6주부터 8개월까지로 부모 또는 정기적으로 자신을 돌보아 주는 소수의 특정인에게 선호성을 보이는 단계이다. 3단계는 약 8개월부터 2세까지로 영아와 양육자 간에 애착이 확실히 형성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단계로서, 신호 또는 움직임을 사용하여 애착을 느끼는 특정 인물과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려는 단계이다. 4단계는 2세 이후로 영아는 다른 사람의 존재를 인식하기 시작하며 그들과 상호작용을 하고자 한다면 상대방의 요구와 필요를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단계이다. 이와 같이 애착행동의 초기 출현은 영아가 타고 난 신호로 나타나지

만 이후의 애착발달에서는 사회적 자극의 양과 질, 그리고 영아의 행동에 대한 양육자의 반응이 중요한 결정인자가 된다. 영아들은 비슷한 애착발달과정을 거치지만, 형성되는 애착의 질은 각각 다르다. 에인즈워스(Ainsworth, 1978) 등의 ‘낯선 상황실험(Strange Situation Procedure, SSP)’결과는 양육자가 영아에게 주는 자극의 양, 반응의 민감성과 안정성 등 양육자와 유아 간의 상호작용 양상에 따라 애착의 유형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다(김경혜 외, 2012).

영아에게 놀이는 표현행동이다. 놀이를 하거나, 업어달라고 칭얼대고, 업히면 넓은 세계로 나가자는 영아의 요구는 새로운 환경에 대한 학습기회이기도 하다. 낯선 대상과 낯익은 대상에 대한 애착과 두려움의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며, 또래나 성인의 언어와 표정, 몸짓을 관찰하고 모방하며 보다 다양하고 풍요로운 감정표현의 행동을 발달시킬 수 있다(유안진, 1990). 영아와 양육자는 놀이를 통해 의사소통을 하고 관계를 형성하여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가 된다. 단동십훈은 영아와 양육자와의 조화로운 관계성을 통해 애착형성을 가능하게 하며 심리적, 정서적인 안정감을 갖게 한다. 양육자가 노래 부르고, 아기와 눈을 마주치며 안아주고, 토닥여주고, 흔들고 지지해주는 신체적 상호작용이 많은 놀이방법으로 영아에게 편안함과 즐거움을 제공한다. 또한 양육자가 시범을 보이고 영아가 그대로 따라 하는 모방형식의 놀이는 영아의 반응성 및 상호주관성을 향상시킬 수 있어 애착증진에 효과가 있다(이경희, 2012). 이는 전통놀이, 자유놀이, 블록놀이간의 엄마와 아이의 상호작용을 비교연구에서도 나타난다. 전통놀이가 다른 놀이에 비해 상호작용 및 정서표현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데, 이는 전통놀이 대부분이 신체접촉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이행숙·한유진, 2008).

아기는 자신이 경험했던 환경 중에서 가장 편안했던 태내와 비슷한 환경을 좋아한다. 아기는 10개월간 자궁 안에 있으면서 자궁 안의 따뜻한 접촉, 양수 속에서의 흔들림, 엄마의 심장박동 소리 등을 늘 접하고 살았다. 태아가 살아가는 자궁이 생명을 가장 잘 살리는 집이라고 볼 때, 영아들을 잘 돌본다는 것은 ‘자궁’의 모습을 본받을 때 가능하다(임재택, 2005). 전래아기놀이인 단동십훈은 태내환경과 비슷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아기의 내적 안정성과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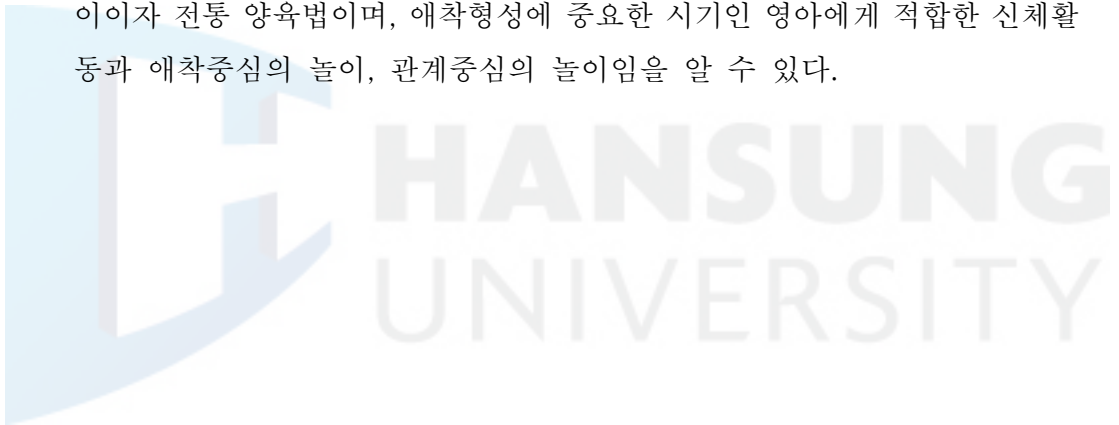
만한 애착 형성을 도우며, 발달과업 수행과정에서 겪는 심리적 불만이나 갈등을 무마하고 해소시킬 수 있다. 다양한 동작으로 신체접촉을 하며 눈을 마주보고 같은 호흡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양육자와 일차적인 관계에서 친밀감과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다(모형오, 2006). 태아는 양수환경에서 어머니의 언어적 특성과 심장의 규칙적인 리듬에 익숙해지며 안정감과 편안함을 느낀다. 따라서 아이는 출생 후에도 익숙한 목소리와 리듬을 원하고 좋아하며, ‘안정된 리듬’ 안에서 아이들은 안정감 있게 자란다. 그러므로 아기에게 태내에서 계속 들었던 규칙적인 리듬을 들려주는 것이 중요하다(윤경애, 2003). 전래아기놀이에서 말은 말이면서 노래이고 노래는 노래이면서 말이었다. 예를 들어 ‘까꿍’이나 ‘곤지곤지’와 같이 짝막한 말이 셈여림과 높낮이와 장단이 부르는 사람과 상황에 따라 리듬감 있게 불러 질수 있으며, ‘달강달강’, ‘불미불미’와 같이 재미있는 단어가 노랫말이 되어 전해져 오기도 한다. 이러한 단동십훈의 특성은 영아에게 편안함과 즐거움을 준다고 볼 수 있다.

3)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놀이

단동십훈의 대부분의 행동은 엄마가 먼저 시범을 보이고 아기가 따라하는 모방행동이며, ‘도리도리, 짹작궁 짹작궁, 지암지암, 곤지곤지’ 등과 같이 반복되는 리듬의 지시어와 동작은 말과 행동이 반복되는 패턴으로 이루어져 부모와 영아 사이에 동시적인 행동을 자극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단동십훈의 열 가지 모든 행동이 눈을 마주치며 행해지고 품에 안고 흔들어 주기, 가슴을 토닥여 주거나 몸 쓰다듬기, 아기 업기 등 주로 친밀한 신체적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져 있어 영아와 양육자간의 친밀한 정서적 유대감을 더욱 증진시킨다(이경희, 2010). 현대 아이들의 놀이 활동은 주로 조직된 놀이기구를 개별적으로 가지고 노는 점에서 개인적이고 독립적인 활동으로 한정된다. 이는 인지중심의 교육풍토와 상업주의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아이들이 사람과 자연의 품을 떠나 장난감, TV, 게임 등으로 대체되고 있는 현실에서 연유한다. 이것은 ‘나와 너’, ‘나와 우리’라는 공동체적이고 유기체적인 관계망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한계에 놓여있다(배영희, 2004). 영유아기에는 지적 잠재력

을 충분히 자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투입되어야 한다. 그러나 자칫 간과하기 쉬운 한 가지 유의사항으로 ‘풍부한 환경’은 대부분의 아기들이 놓여져 있는 일상적인 환경이다(이경은, 2006) 이는 영아들에게 더 많은 자극을 제공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이 완전히 박탈당했을 경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즉 일상적 환경의 중요성에 주목해야 하며 교재, 교구보다는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먼저라는 것이다. 전래아기놀이를 통해 양육자와 마음을 주고받으며 성장하는 아이는 내적 안정감, 자신감을 갖게 되며, 낯선 대상들과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어나가는 힘을 키우게 된다. 따라서 전래아기놀이인 단동십훈은 자연스러운 사회화의 훈련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임소영 · 김은주, 2010)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단동십훈은 선조들의 오랜 지혜가 담긴 과학적인 놀이이자 전통 양육법이며, 애착형성에 중요한 시기인 영아에게 적합한 신체활동과 애착중심의 놀이, 관계중심의 놀이임을 알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사례연구

본 연구는 연구방법으로 질적 사례연구(Case Study)방법을 사용하였다. 사례연구는 어느 특정한 상황이나 사건, 현상을 자세하게 기술함으로써 그에 대한 이해를 추구하는 연구이다(Merriam, 1998). 그러나 사례연구는 단지 자료수집을 위한 기술이나 연구 설계의 특징적인 일부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하나의 연구전략으로 파악해야 한다. 사례연구는 실생활에서 벌어지는 현재의 현상에 대해 조사하는 실증적인 연구이며, 현상과 정황 사이에 경계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연구방법으로 실생활의 현상을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 주요 정황조건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연구방법이다(Yin, 2009). ‘사례’는 개인 이외에도 사건이나 개념이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의사결정, 프로그램, 프로세스의 구현, 조직 내의 변화 등, 사례연구의 대상은 폭넓다. 따라서 ‘분석의 단위’ 설정이 중요하며 연구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구체화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단일사례(single-case)연구이다. 단일사례연구는 이미 검증된 이론을 다시 한 번 확인하거나, 그 이론을 반박하거나, 혹은 그 이론을 확장할 수 있다(Yin, 2009). 선행연구를 통해서 단동십훈이 영아의 발달과 어머니-영아 간의 애착형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은 밝혀졌다. 그래서 연구자는 처음 가정을 떠나서 교사와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는 0세 영아를 대상으로 단동십훈의 교육적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단동십훈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경험, 적용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자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2. 연구절차

1) 사전 준비

본 연구자는 사전에 단동십훈에 관한 문헌고찰, 연구문제 인식 등의 준비 시간을 가졌다. 또한 사전면담을 통해 참여교사의 단동십훈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았는데, 단동십훈에 대한 사전 지식이나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참여교사 사전면담 후 2016년 3월에 주1회씩, 총 4회에 걸쳐 사전 교육시간을 가졌다. 사전교육은 EBS 다큐프라임 ‘오래된 미래 전통육아의 비밀’ 영상물 시청과 출간도서(김광진·조미진, 2012) 읽기로 진행하였으며, 부수적으로 ‘채인지TV(www.changetv.kr)’의 ‘한민족 전통육아법 단동십훈’ 관련 동영상 10편을 참고자료로 시청하였다.

2) 단동십훈의 적용 및 자료 수집

단동십훈의 적용은 연구에 참여하는 영아들이 어린이집 초기적응이 거의 이루어진 2016년 4월 4일부터 2016년 5월 13일까지 총 6주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2주마다 교사회의를 통해서 진행상황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연구자와 참여 교사 간에 주 1회씩 개별면담을 통해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였다. 교사회의와 개별면담은 녹음한 후 전사하였고, 활동내용은 참여교사가 매일 관찰일지를 통해 기록을 남겼으며, 연구자 또한 관찰한 내용을 기록하여 관찰일지에 첨부하였다. 아쉬운 점은 활동장면을 비디오로 촬영하여 분석하고자 하였으나, 단동십훈 활용이 일상 속에서 비정기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다 보니 안정적으로 비디오 촬영을 할 수가 없었다는 점이다. 연구일정은 다음과 같다.

< 표 1 > 연구일정

	기 간	내 용
준비기간	2016. 1. 4 ~ 2016. 2. 29	문제인식 및 문헌고찰
	2016. 3. 2 ~ 2016. 4. 1	참여교사 사전교육
연구기간	2016. 4. 3 ~ 2016. 5. 13	6주간 진행
자료정리	2016. 5. 13 ~ 2016. 6. 3	결과 정리 및 보고서 작성

3. 연구 현장 및 연구 참여자

연구현장이 된 어린이집은 800여 세대 아파트단지에 위치해 있는 정원 20명의 가정어린이집으로 2007년에 개원하였다. 어린이집의 원훈은 ‘자연을 닮은 아이들’이며, 교육목표는 ‘자연 속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는 어린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아이의 본성에 맞게 자라는 어린이, 우리 것을 소중히 여기는 어린이’로 생태유아교육을 지향하는 어린이집이다. 학급구성은 햇빛반(만 2세), 달빛반(만 1세)이 각각 한 학급, 별빛반(만 0세)이 두 학급으로 총 4학급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 참여자는 별빛반(0세반)에서 생활하는 영아 5명과 공동 담임 J교사, S교사이며, 이들 영아와 교사는 어린이집에서 동일한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다. 대상 영아나 교사 모두 단동십훈이나 전래아기놀이에 대한 사전 경험이 없었다. 별빛반 J교사는 어린이집 영아반 교사로서 5년의 경력교사이며, 그중 0세반은 2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 반면 S교사는 경력이 없는 교사로 2016년 3월에 어린이집에 입사한 신입교사이다. 별빛반 영아들은 모두 5명으로 여아 4명, 남아 1명의 구성비로 이루어져있다. 반구성은 정○○, 하○○, 최○○ 등 세 명은 J교사가 담임교사이며, 한○○, 안○○ 두 명은 S교사가 담임교사이다. 그러나 영아들과의 생활 및 상호작용은 주로 경력교사인 J교사가 담당하여 실질적인 담임역할을 맡고 있고, S교사는 부담임 역할을 한다.

영아들의 어린이집 경험을 살펴보면, 모든 영아들이 본 연구가 진행된 어린이집 이전에 다른 유아교육기관을 다닌 경험이 없었다. 하○○은 연구가 진행되는 어린이집에 입소한지 10개월 되었고, 정○○, 한○○, 안○○은 신입원아로 2016년 3월에 입소, 1개월 생활하여 어느 정도 적응이 되었다. 최○○은 2016년 4월에 입소하여 프로그램 적용시기에 어린이집 적응기간을 거치고 있었다.

영아들의 발달정도는 J교사가 담당하는 원아 중 하○○, 정○○은 아장아장 걸을 수 있고, 최○○은 손을 잡고 일어설 수 있는 걸음마 초기 단계였으며, S교사가 담당하는 한○○, 안○○은 기어 다니는 시기이다. 5명 모두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표’와 육안으로 보기에 발달상 문제가 있거나 지체가 있지는 않

왔다.

양육자와의 관계는 정○○의 어머니는 전업주부로 모든 양육을 책임지고 있고, 하○○, 최○○, 한○○, 안○○은 맞벌이 가정으로 조모, 이모, 직업도우미 등의 도움을 받고 있다. 이런 영향으로 등·하원시간이 모두 다른데, 최○○, 한○○, 안○○의 어린이집 등원은 어머니와 함께 오전 8시 전에 등원해서 오전 당직선생님과 1시간 정도 보낸 후에 담임교사와 생활하게 된다. 반면 하○○는 다른 영아들 보다 늦은 오전 11시 경에 등원하여, 영아들마다 간식이나 식사, 수유, 낮잠 등에 시간적인 편차가 있다. 연구에 참여한 별빛반의 배경은 다음과 같다.

< 표 2 > 별빛반(0세반) 영아의 배경

연구대상자	성별	생년월일	입소시기	프로그램적용시 (4월~5월)월령
정○○	여	2015. 1. 1	2016. 3. 1	15~16개월
하○○	여	2015. 2. 25	2015. 6. 9	14~15개월
최○○	여	2015. 3. 24	2016. 4. 1	13~14개월
한○○	남	2015. 4. 26	2016. 3. 1	12~13개월
안○○	여	2015. 8. 24	2016. 3. 1	8~9개월

< 표 3 > 별빛반(0세반) 담임교사의 배경

연구대상자	나이	일반적 배경
J교사	42세	보육교사 경력 5년(0세반은 2년)
S교사	39세	초임교사

4. 단동십훈 적용 및 고려할 사항

단동십훈의 적용은 이경희(2012)의 ‘영아의 성장 발달시기에 따른 단동십훈의 활용’을 참고하였다.

< 표 4 > 영아의 성장 발달시기에 따른 단동십훈의 활용(이경희, 2012)

영아의 성장시기	단동십훈
목을 가누는 시기 (3,5개월 반~)	도리도리
손을 움직여 놀기 시작하는 시기 (6개월~)	짹짹궁, 짹짹, 곤지곤지, 아함아함 추가
앉을 수 있는 시기 (7~8개월)	시상시상, 질라아비 훨훨 추가
기어 다니기 시작하는 시기 (8개월 반, 12개월~)	섬마섬마, 업비업비 추가
일어서는 시기 (10, 12개월~)	불아불아 추가

다만 연구 대상 영아들이 8개월에서 16개월의 월령으로 영아의 특성과 흥미에 따라 융통성을 가지고 실행하였다. 단동십훈 외에 상황에 따라 전래아기놀이를 첨부하였다. 가령 기저귀를 갈고 난 다음에 ‘쭉쭉기’와 같은 마사지를 한다거나 낮잠을 재울 때 토닥여주며 ‘자장자장’을 해주고, 걷기 시작할 때 ‘걸음마, 걸음마’를 하는 경우, 교사의 도움 없이 서는 연습을 할때 ‘따로따로’ 등과 같은 놀이들로 상황에 따라 반드시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교사들이 자율적으로 진행하게 하였다.

본 연구에서 단동십훈을 적용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첫째, 사전 계획 하에 시간을 미리 정해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 일상 활동에서 자연스럽게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할 수 있도록 한다. 영아들의 흥미를 이끌어 내거나 놀이를 즐겁게 복돋을 때, 즐거운 놀이 후 휴식을 가질 때 등 상황에 맞게 융통성 있게 적용한다.

둘째, 영아들의 신체의 발달 정도에 따라 적절히 진행한다. 별빛반 영아들은 시기별로 비슷한 월령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신체발달의 정도는 다르다. 그래서 영아간에 비교하기 쉽고 동작을 못했을 경우 조급해지기 쉽다. 영아들의 발달 특성에 맞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단동십훈은 아주 쉽고 간단한 동작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쉽게 지루해 질수도 있고 흥미를 못 느낄 수도 있다. 따라서 영아들의 신체리듬에 맞게 지속적으로 자연스럽게 실시되어야 한다. 영아들이 지루해 하거나 다른 놀이에 집중하고 있을 때는 하지 않도록 한다.

넷째, 단동십훈은 놀이도구 없이 교사와 함께 하는 놀이이다. 그래서 먼저 영아와 교사가 친숙해지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영아들과 눈을 마주보고 노래를 부르며 신체를 접촉하는 방법이다. 그러므로 실무자로서가 아닌 어머니의 마음으로 ‘사랑’을 바탕으로 진행한다.

5. 자료수집

사례연구의 자료수집의 목적은 실제로 발생한 사건 및 인간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자료를 모으는 것으로,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은 첫째, 다양한 자료수집 방법으로 증거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공식적으로 모아 둔 자료들의 집합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야 한다. 셋째, 연구문제, 수집된 자료, 도출된 결론 사이의 명확한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한다(Yin, 2009).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와 함께 사례연구를 적용하면서 수집한 자료는 참여관찰, 심층면담, 연구참여자 관찰일지가 있으며, 자료수집 기간은 2016년 3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총 3개월이다.

1) 참여관찰

참여관찰은 질적연구에서 가장 대표적인 연구방법 중 하나로, 연구자가 현장에 들어가 오랫동안 머물면서 관찰, 연구하는 방법이다(김영천, 2012). 연구자가 관찰 대상자의 행위에 일체 간섭하지 않고 관찰된 현상만 기록하는 것을 ‘비참여 관찰’ 연구방법이라고 한다. 이에 비해 참여관찰은 연구자 현장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연구자의 경험이나 느낌, 현장 구성원과의 비공식 면담까지도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연구자 자신의 행동, 생각, 감정과 관련된 기술이 필요하며 이러한 정보들은 참여관찰의 결과로 수집된 자료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이용숙 외, 2011).

본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의 단동심혼 적용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별빛반의 생활모습을 관찰하며 자료를 수집하였다. 참여관찰은 주로 별빛반 영아가 생활하는 교실과 유희실에서 이루어졌으며, 바깥놀이를 하는 놀이터, 산책하는 과정을 관찰하기 위해 어린이집 밖에서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또한 관찰하는 시간은 아침 등원하는 시간, 간식이나 점심식사시간, 자유 놀이시간 등 다양한 시간대에 관찰하였다. 연구자의 개입의 정도는 자연스러운 접촉 외에 의도적인 접촉은 피하는 ‘관찰자로서 참여관찰’을 하였다.

연구자는 사전에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연구기간 동안에도 지속적인 소통으로 관찰자를 의식하거나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관찰의 초점은 참여교사가 단동심혼을 적용하는 상황분석과 단동심혼의 적용에 따른 영아들의 반응에 두었다. 또한 관찰의 횟수는 미리 정해두지 않고 최대한 자주 연구 현장을 방문하여 관찰을 수행하였다. 관찰한 내용은 메모 형식으로 기록한 후 참여교사들의 관찰일지와 함께 컴퓨터에 문서파일로 정리하였다. 단동심혼 적용기간동안 총 12회의 관찰이 이루어졌다.

2) 심층면담

심층면담은 참여관찰과 함께 질적연구에서 대표적인 연구방법으로 개인 혹

은 다수의 연구 참여자 간에 대화의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심층면담은 연구자가 직접 관찰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이며, 관찰하려는 상황에 대한 폭넓은 견해를 얻고자 할때 이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다(김영천, 2012). 본 연구는 2주 단위로 교사회의라는 공식면담을 통해 단동십훈 활용에 대한 점검과 평가가 이루어졌다. 교사회의는 연구 진행 전 사전 모임 1회, 연구진행하는 과정에 3회가 이루어져 총 4회의 공식적인 면담을 진행하였다. 공식적인 면담에는 연구자와 참여교사가 모두 참여하여 회의형식의 면담을 진행하였다. 구체적인 협의일정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표 5 > 협의일정 및 협의내용

협 의 일 정	협 의 내 용
1차 회의 (2016. 3. 28.)	- 단동십훈 활용 전 사전협의 - 단동십훈에 대한 인식, 경험확인
2차 회의 (2016. 4. 18.)	- 영아들의 반응이 없음과 교사의 경험부족으로 인한 단동십훈 활용의 어려움. - 단동십훈 활용방법 변화(대집단활동).
3차 회의 (2016. 5. 2.)	- 단동십훈의 대집단활동에 대한 평가와 반성. - 영아들이 단동십후에 반응을 보이기 시작. - 가정과의 연계
4차 회의 (2016. 5. 13.)	- 단동십훈 활용에 대한 장·단점, 고려할 점. - 영아들의 변화 및 학부모들의 반응. - 단동십훈에 대한 인식의 변화.

또한 비공식적인 면담으로 참여관찰 중에 연구자와 참여 교사 간에 개별적으로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단동십훈 적용기간을 모두 마친 후에는 학부모와 개별적으로 면담을 가졌다. 메리엄(Merriam, 1998)은 면담을 구조화 정도에 따라 매우 구조화된 면담, 반구조화된 면담, 비구조화된 면담을 제시하였다. 연구자와 참여자 모두가 참여하는 공식적인 면담은 어느 정도 질문들을 구성하여 상황에 반응하며 진행하는 반구조화된 면담으로 진행하였고, 그 외 비공식적인 개별면담은 진행이 유연한 비구조화된 면담으로 진행하여 현상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공식적인 면담은 40분 전후로 실시하였으며, 모든 내용은 녹음하여 면담 직후 전사되어 기록하였다. 비공식적인 면담은 미리 계획하지 않고 연구 수행 과정에서 의문점이나 발생하거나 현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때 자연스럽게 추가하였으며 간단한 메모 후에 기록하여 문서화 하였다.

3) 연구 참여자 관찰일지

본 연구에서는 연구에 참여한 J교사, S교사가 단동십훈을 적용하면서 관찰되는 영아들의 반응을 관찰일지 형식으로 기록하였다. 관찰일지는 영아별로 매일 기록하였으며, 단동십훈을 직접 적용하는 교사의 입장에서 영아들의 변화의 정도와 효과에 대한 자료로 활용하였다.

6. 자료분석 및 해석

본 연구에서는 참여관찰 자료, 심층면담 자료, 연구 참여자 관찰일지를 중심으로 자료를 분석 및 해석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현상을 구성하는 요인이나 변수를 확인하는 작업을 의미하며, 해석은 현상의 의미를 거시적인 맥락 속에서 이해하는 작업이다(조용환, 2008). 또한 기술, 분석, 해석의 세 작업은 복합적, 순환적, 상호보완적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자료 수집 단계에서부터 연구자의 분석이 시작된다는 질적 연구의 특성이다(김영천, 2012). 연구과정에서 수집된 자료 속에 함축된 의미를 추출하고, 반복된 패턴을 찾아내며, 개

념을 범주화해가는 분석적 귀납방법을 적용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핵심적인 단어를 정리하여 목록을 만들고, 검토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 유목화, 상/하위 개념화하여 정리하였다.

또한 최종 분석 및 해석단계에서 왜곡되고 편향된 해석의 가능성을 줄이는 절차로 참여자 검토(member check)와 전문가 및 동료 연구자의 검증을 거쳤다. 참여자 검토는 연구자가 분석한 내용과 결론이 타당한지에 대해 연구 참여자에게 확인하는 절차이며, 전문가 및 동료 연구자 검증은 연구의 배경이나 학문의 분야가 같은 전문가 및 동료 연구자를 선정하여 그들의 관점과 조언을 통해 주관적인 해석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김영천, 2012). 따라서 연구자는 연구 참여교사인 J교사와 S교사에게 수집된 자료를 공유하고 확인과정을 거쳐 보충하거나 수정하는 기회를 가졌다. 또한 유아교육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동료 2인과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해 논의하였고, 연구의 진행단계마다 생태유아교육 전문가 1인의 자문을 받았다. 이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연구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IV. 연구결과

본 연구는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별빛반(0세반) 영아들에게 전래아기놀이인 단동십훈을 활용하여 영아의 반응과 적용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그리고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의 생각과 변화를 알아보고, 단동십훈이 유아교육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아침에 등원하여 자유놀이시간, 간식 및 점심시간, 낮잠시간, 하원시간 등 계획된 어린이집의 일상생활에서 참여교사들은 영아들의 개별적인 특성과 발달에 맞게 단동십훈을 적용하고자 하였으며, 영아들이 놀이를 할 때는 더욱 즐겁게 북돋아주고, 쉬는 동안에는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등 영아의 상황과 기분에 맞게 융통성 있게 적용하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본 연구자는 참여교사의 적용과정에서 나타나는 행동, 언어, 상호작용, 실천 모습 등에 중점을 두고 그 의미를 해석하였다.

1. 단동십훈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변화

1) 단동십훈에 대한 교사들의 사전 인식

영아기 전래놀이에 대한 부모들의 인식을 알아보는 연구에서, 영아기 전래놀이노래 중 ‘ 짹짹, 도리도리, 곤지곤지, 뽀뽀’은 90% 이상의 부모들이 알고 있었으며, ‘따로따로’(56%)를 제외하고 아는 경우가 총 응답자의 반수가 되지 않았다. 또한 응답자의 22.6% 만이 자녀양육에 적용하고 있었다(엄정애, 2001). 이 중 20대, 30대의 부모들이 적용하는 비율은 더욱 낮았다. 또한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전통육아에 대한 이미지 분석 연구에서는 단동십훈, 포대기와 같은 전통육아법이 과학적이고, 교육적이며, 가치 있는 육아법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어머니들의 75%가 전통육아의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고 있다(김은주 외, 2014). 이는 전통육아의 실천을 위해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 이는 할머니 세대, 어머니 세대로 이어져 오던 전통적인 계승방식이 아닌 구체적인 데이터와 부모교육과 같은 지원이 필요해진 것을 의미하

며, 육아 본능이 약해진 현재 어머니들의 현실을 말해주고 있다. 연구에 들어가기 전 단동십훈에 대한 이해를 묻는 사전질문에 참여교사 J교사, S교사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 했다.

‘단동십훈’이라는 말은 보육교사하면서 처음 들었어요. 어렸을 때 ‘곤지곤지, 짹짹’ 이런 말은 흔하게 듣고 자라서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것은 알았고, 엄마 아빠들이 늘상 해오던 거, 입에서 입으로 전해오는 것은 알았지만, ‘단동십훈’이라는 말은 처음 들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애들이 어렸을 때 시 어머니와 함께 살았는데, 그때 어머니께서 우리 아이를 재울 때 ‘자장 자장 우리아가, 검둥개야 짹지마라~’ 이런 자장가라든지, ‘도리도리, 짹짹’ 이런 것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것이 ‘단동십훈’ 이었던 것 같아요.

(J교사, 2016. 3. 28. 1차 교사회의)

저는 이번 연구에 참여하면서 ‘단동십훈’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어요. ‘짹짹, 도리도리’ 이런 말은 알았는데, 이런 말들이 ‘단동십훈’이라고 하는지는 몰랐어요. 제가 아이를 키울 때는 아이들을 위 아래로 흔들지 말고, ‘도리도리’ 같은 것도 아이들에게 위험하다고 했어요. 그 당시 한참 TV에서도 그렇고 애기들 녀가 흔들려서 위험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동요를 많이 불러줬어요.

(S교사, 2016. 3. 28. 1차 교사회의)

본 연구의 참여교사인 J교사, S교사 역시 단동십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음을 알 수 있다. ‘도리도리, 짹짹, 뽀뽀’ 등의 놀이는 전통적으로 아이를 키우면서 하는 놀이로는 알고 있었으나, 열 가지 훈치를 모두 알고 있지는 않았으며, 그것의 명칭이 단동십훈인지 모르고 있었다. 그리고 전통적인 육아법 보다는 인터넷이나 TV 등 미디어가 주는 정보를 더 신뢰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입에서 입으로 대를 이어 전승되는 전통적인 육아법 보다는 육아서적이 더 과학적이며, 인터넷 사이트에서 주고받는 정보가 더 유익하다고 믿는 현상과 관련 있다. 인터넷이나 육아서적을 통한 무수한 육아정보는 양육자로 하여금 육아에 대한 철학과 소신 없이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김광호·조미진, 2012).

2) 단동십훈의 활용과정

참여교사인 J교사와 S교사는 사전 교육을 통하여 단동십훈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본 연구에 임하였다. 하지만 단동십훈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영아들에게 효과적으로 동작을 알려주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단동십훈을 영아들에게 적용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시기마다 변화가 있었는데, 그 변화과정은 첫째, 초기 적용의 어려움, 둘째, 대집단활동에 적용, 셋째, 다른 놀이형태로 변형, 넷째, 변화의 시작으로 정리 할 수 있다. 구체적인 변화과정과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초기 적용의 어려움

단동십훈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과 애착보육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전통육아법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참여교사를 대상으로 'EBS 다큐프라임-오래된 미래 전통육아의 비밀' 동영상과 책자로 사전교육을 하였다. 처음 영상과 책을 접했을 때, 단동십훈의 동작이 어렵지 않고 익숙한 부분이 많으며, 노래 또한 단조롭고 반복되는 음률로 구성되어 있어 연구자와 참여교사들은 영아들에게 적용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연구가 시작되고 영아들에게 적용해 보면서 단동십훈에 대한 이해부족과 경험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제가 ‘단동십훈’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지 재미가 없고, 노래도 잘 불러지지 않아요. 연습할 때나 노래를 들을 때는 잘 따라하게 되는데 막상 아이들과 함께 하려면 생각이 잘 나지 않고 ‘도리도리, 짹짹, 찹찹’ 같이 귀에 익은 몇 가지만 하게 되요. 아이들과 놀때, 기저귀를 갈 때, 틱틱이 진행하려고 하는데 잘 되지도 않고, 아이들도 반응하는 시간이 매우 짧아요. 노래도 계속 같은 리듬만 진행되다보니 지루하고....

(S교사, 2016. 4. 11. 개인면담)

초기 단동십훈을 적용함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첫째, 단동십훈에 대한 경험 부족이었다. 단동십훈의 열 가지 훈치와 놀이방법은 알고 있었으나, 적용하는 과정에서 참여교사는 매우 어색해 했다. 기존에 해오던 동요를 불러주거나 장난감이나 손유희로 집중을 유도하고 놀이를 진행해오던 것에 비해서 단동십훈은 교사와 아이들 모두에게 낯선 놀이였다. 단동십훈의 동작과 노래가 단순하고 반복적으로 진행되어 쉽게 느껴졌지만, 실제 영아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스스로 몸에 익숙해지는 것이 필요하였다.

둘째, 단동십훈의 획일적인 적용이다. 참여교사들은 단동십훈을 통해 영아들의 관심을 유도하고자 하였다. 아래 예시는 낮잠시간 후 J교사의 단동십훈 활동모습이다.

◎ 낮잠시간 후

낮잠을 자고 일어난 정○○와 최○○이가 유희실에서 자유놀이를 하고 있었다. 최○○은 음률영역에서 악기들을 만지고 놀고 있었고, 정○○은 기분이 좋지 않은지 앉아있었다. J교사가 ‘도리도리, 짹짹’ 동작과 함께 노래를 불러 주었다. 최○○은 노래가 들리자 일어나서 마라카스를 흔들며 반응을 보였다. 반면 정○○은 가만히 장난감을 쥐고 앉아있다. J교사는 정○○의 손을 잡고 ‘짹짹’을 시켰는데, 짜증을 내고 울기 시작했다. J교사는 ‘단동십훈’을 멈추고 정○○를 안고 달래주었다.

(2016. 4. 8. 연구자 관찰일지)

J교사는 낮잠시간 후 안정된 분위기라고 판단을 하고 단동십훈을 활용하였다. 그러나 J교사는 정○○와 최○○의 상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최○○에게는 동적인 놀이를 해주고, 정○○에게는 정적인 놀이를 활용해 주었어야 하는데, 똑같은 놀이를 동시에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즐겁게 놀이하는 상황, 기저귀를 갈거나 피곤하여 짜증을 부릴 때 등 아이들이 처한 상황에 맞게 자연스럽게 개별적으로 놀이를 진행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셋째, 단동십훈 활용의 어려움은 교사들의 신뢰감 부족도 연관되어 있다.

‘단동십훈’이 단조롭고, 시작과 끝이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어서 그런지 아이들이 생각보다 관심이 없어요. ‘ 짹짹, 짹짹 ’ 등을 하면 동작을 따라하지 않고 그냥 쳐다만 봐요. ‘단동십훈’이 처음에 아이들과 스킨쉽도 많이 할 수 있고 같이 놀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컸는데, 시작한지 2주밖에 되지 않아서 시간이 짧긴 하지만, 손유희 할 때 비하면 집중시간이 너무 짧아요. 동요와 함께 손유희를 하거나, 율동을 하면 노래가 끝날 때 까지 보는데, ‘단동십훈’은 관심 있을 때 한번 보고 바로 장난감을 가지고 놀거나 다른 놀이를 해요.

(J교사, 2016. 4. 18. 2차 교사회의)

참여교사들은 어린이집에서 해오던 장난감이나 도구를 이용한 놀이, 노래, 손유희 등의 프로그램이 단동십훈보다 영아들이 관심을 보이고 집중도 잘 된다고 하였다. 단동십훈의 초기 적용과정에 나타난 참여교사들의 경험과 이해의 부족, 영아들이 처한 상황의 이해 부족, 신뢰감의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으며, 영아들에게 완벽한 동작으로 빨리 따라할 수 있게 하려는 조급함을 가져오게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단동십훈을 전통적인 방식이 아닌 어린이집에 맞는 여러 가지 방식을 모색해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대집단활동에 적용

2차 교사회의 후 교사와 영아들이 단동십훈에 익숙해 질 수 있도록 오전 중 교실에 모여서 안정적인 분위기에서 놀이를 진행해 보기로 하였다. 이때 ‘체인지TV(www.changetv.kr)’의 ‘한민족 전통육아법 단동십훈’의 음악을 참고하였다. 단동십훈을 대집단활동으로 적용하기 위해 오전 간식 후 자유놀이시간에 별빛반 교실에 모여 음악을 틀어놓고 진행하였다. 그러나 2016년 4월 18일과 19일 이틀 동안만 진행하고,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다.

오전 간식 먹고 교실에 모여서 해보았는데, 월요일(4월 18일)과 화요일(4월 19일)만 하고 그 후로는 못했어요. 환절기다보니 아이들이 감기가 걸려 많이 아프고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잘 따라하지도 않고, 더 이상 할 수가 없

었어요.

(J교사, 2016. 5. 2. 3차 교사회의)

한○○하고 안○○이가 등원시간, 낮잠시간, 수유시간등 생활하는 시간이 서로 달라서 시간을 정해서 집중적으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등원해서 간식 전후나 낮잠 자고나서 기분이 좋을 때 개별적으로 했어요.

(S교사, 2016. 5. 2. 3차 교사회의)

집단활동으로 단동십훈을 적용하는 데는 ‘아이들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선생님 주도로 놀이를 진행하는’ 문제가 있었다. 놀이는 참여하는 아동들의 자발성과 재미가 중요한 특성으로, 특히 자발성이 전제되지 않는 놀이는 더 이상 놀이가 아니며, 재미있는 ‘교육’이거나 재미있게 해주는 ‘서비스’이다. 또한 기존의 전통놀이 교육에서 대부분의 교사들은 놀이를 주도하고 통제하며 감독하는 경향이 있음을 반성하며, 놀이의 안내자 역할로 교사를 규정하고 있다(김영미, 2006). 이렇듯 교사가 놀이를 주도하려는 잘못된 경향은 이전의 연구에서도 보여주고 있다. 영아들은 각자의 구체적인 상태와 상황이 모두 다르며, 관심을 가지는 측면도 모두 다르다. 단동십훈을 집단활동으로 익숙해지도록 하는 시도는 놀이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영아들과 함께 놀아주는 관점이 아닌, 놀이를 교육하는 관점에서 진행되었다는 반성을 하게 되었다.

(3) 다른 놀이형태로 변형

참여 교사들은 연구 초기 단동십훈 활용에 대한 어려움을 ‘구조화된 놀이’로 변형하여 극복하고자 하였다. 영아들에게 구조화된 교구와 준비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단동십훈에 재미를 느끼고, 오랜 시간 적용할 수 있어 빨리 익숙해 질 것으로 기대하였다. 마침 2016년 4월 보육계획안에 ‘지암지암-오므렸다 폈다’가 계획되어 있어, 그에 맞는 교구를 준비하고 놀이진행을 프로그램화시켜 단동십훈과 비교해 보기로 하였다. 프로그램은 ‘유아교육 키드키즈(<http://www.kidkids.net>)’를 참고하였다. 탄력있는 줄에 공을 매달아서 아이들이 공을 잡아보는 놀이로, 아이들이 즐겁게 놀 수 있어서 3번을 더 진행하였

다. 그러나 재미있는 놀이와 별개로 교사들에게 새로운 고민이 생겼다.

‘잼잼’만 하면 단조롭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잼잼’을 할 정도의 발달 수준이면 할 수 있는 동작으로 놀이를 확장해서 공을 잡았다 놓고 다시 잡으려면 몸을 움직여야 하니까, 신체활동으로 계획된 거 같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반응도 좋고 재미도 있어 하는데 ‘단동십훈’과 별개로 재미를 느끼는 것 같아요. 공을 가지고 즐거워는 하는데 오히려 공 때문에 ‘단동십훈’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J교사, 2016. 5. 2. 3차 교사회의)

단동십훈은 아이의 발달에 적합한 신체와 애착중심의 놀이로 상징화 하였으며, 부모의 역할은 애착과 사랑을 공감으로 한 조력자이다. 또한 장난감에 집중하는 서양놀이와 다르게 아이에게 집중하는 전통놀이로서 애착중심의 놀이다(김광호·조미진, 2012). 단동십훈은 양육자와 아이가 신체접촉 통한 애착보육을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구조화된 환경에서 계획된 놀이를 전래아기놀이인 단동십훈이라고 볼 수는 없었다. 아이들에게 즐거운 놀이는 될 수 있었으나, ‘교사와 영아가 신체적으로 접촉하며 신뢰감을 형성하는 애착보육의 형태는 아니다’라는 반성을 하게 되었다.

(4) 변화의 시작

위와 같은 시행착오와 노력으로 단동십훈이 교사와 영아에게 익숙해지는데 약 3~4주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였다. 그 후로 영아들은 개별적으로 차이는 있지만 선생님의 동작이 없이도 노래를 불러주거나, 상황에 따라서 단동십훈의 여러 동작을 보여주기 시작하였다. 교사들 또한 단동십훈을 응용한 다양한 동작을 만들어서 변화를 주었고, 노래가사에 아이의 이름을 넣어주거나 상황에 맞게 내용을 바꾸어서 불러주었다.

아직 한 달 밖에 안 되어서... 많이 좋아졌다고는 말할 수 없고, 제가 먼저 동작을 하면 ‘따라해야 하는 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 같아요. 꾸준히 해보

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더 잘 할 거 같아요.

(J교사, 2016. 5. 9. 개인면담)

기간이 늘어날수록 제가 좀더 자연스러워진 것 같아요. 의도하지 않아도 입에서 흥얼거려지기도 하고, 아이들을 보면서도 자연스럽게 나오기도 하고, 아이들도 노래가 나오면 반응을 하는 게 보여요. 단순히 몸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불아불아’가 나오면 옆으로 흔들고, ‘도리도리’가 나오면 고개를 흔들고, ‘ 짹짹’은 손을 흔들고.... 반복적으로 활동하다 보니까 학습화가 된 것 같아요.

(S교사, 2016. 5. 9. 개인면담)

또한 영아들이 집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졌고, 학부모들에게 단동십훈의 동작과 의미에 관한 자료를 가정통신문으로 만들어 연구에 참여한 영아들의 가정에 보냈으며, 집에서도 활용해 볼 것을 권유하였다. 연구를 마친 후 학부모들은 가정에서 영아들의 반응을 다음과 말하고 있다.

집에서도 ‘ 짹짹, 짹짹’ 또 팔을 흔들고 알 수 없는 동작들을 해요. 처음에는 뭘 하는지 몰랐는데 자세히 보니까 ‘단동십훈’ 이었어요. 자주 하는 것은 아닌데, 신기하게도 음악이 나오면 ‘단동십훈’의 손동작을 할 때가 있어요. (‘단동십훈’ 노래를 하면 그런가요?) 아니요, 아무 노래나 들리면 해요. 오빠가 동요를 불러도 하고, 기분이 좋을 때 그렇게 하나 봐요.

(하○○ 어머니, 2016. 5. 10. 개별면담)

할머니가 집에 와 계셨는데, 할머니가 정○○에게 ‘ 짹짹, 짹짹, 도리도리,’ 이런 동작들을 가르쳐 줬나 봐요. 노래를 불러주면 곧 잘 하더라고요.

(정○○ 어머니, 2016. 5. 10. 개별면담)

최○○는 기분이 좋거나 노래가 들리면 좋아서 몸을 흔들어요. 그리고 어린 이집 다니기 전에도 집에서 저와 같이 ‘ 짹짹, 도리도리’ 이런 놀이들은 했어요. 지금은 여러 가지 동작을 많이 해요. 특히 ‘곤지곤지’는 다섯 손가락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어린이집에서 그렇게 가르쳐 줬나 봐요.

(최○○ 어머니, 2016. 5. 12. 개별면담)

단동십훈의 활용과정을 통해 교사가 영아들을 대상으로 다양하고 효과적인 활용방법과 정보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어야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영아들과 교사들이 단동십훈에 익숙해지는 데는 일정한 기간이 필요 하였으며, 빨리 익숙해지고자 하는 목적달성 중심의 보육은 교사로 하여금 조급함과 잘 따라하는 아이들과 그렇지 못한 아이들과의 편견을 가지게 할 수 있다. 또한 사전에 가정과 연계하여 단동십훈의 내용이나 활동 방법을 부모님과 공유하고 함께 실천하지 못한 점을 아쉬워하였다. 참여교사들은 어린이집 일상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영아들에게 단동십훈을 활용하고, 익숙해지도록 노력하였으며, 단동십훈에 대해서 정보가 없던 처음과는 달리 ‘교사와 아이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였다. 또한 이후에도 영아반에서 계속 활용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3) 교사인식의 변화

참여교사들은 단동십훈을 영아들에게 적용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해 가는 과정에서 보육교사로서 많은 고민과 생각의 변화를 가져왔다고 하였다. 단동십훈에 대해 참여교사들이 느끼는 인식의 변화는 영아들의 성장과 발달에 도움이 되며, 신체접촉을 통한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유도하고, 아이들의 상황에 따라 놀이는 즐겁게, 쉴 때는 편안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1) 성장발달에 도움이 되는 단동십훈

영유아의 운동발달은 대근육과 소근의 발달 즉 신체발달에 기초한다. 이 시기 가장 중요하고 급속히 이루어지는 발달 형태 중의 하나가 신체 근육을 조절할 수 있는 통제능력의 발달이다(김두범 외, 2012). 단동십훈은 아이들의 발달 시기에 맞는 신체활동을 제공한다. 특히 걷기 시작할 무렵 아이들에게

다리에 힘을 길러주고 균형 감각을 익힐 수 있는 놀이를 제공한다. 걷기 시작하는 무렵의 한○○과 안○○의 담임교사인 S교사는 ‘단동십훈이 이 무렵의 아이들에게 효과적이면서 즐거움을 주는 운동법’이라고 말한다.

한○○는 처음에 기어 다니는 시기였는데, 지금은 양손을 잡고 걷는 걸 좋아해요. ‘걸음마 걸음마’ 하면서 같이 놀이를 해주면 웃으면서 잘 걸어 다녀요. 그리고 안○○는 걸음마 전 단계, 무릎을 꿇고 서있는 정도예요. 다리에 힘이 없어서 잡고 일어서지는 못해요. 손위에 올려놓고 ‘섬마섬마’를 해봤는데, 바닥에서 했을 때 보다 다리에 힘이 더 들어가요. 바닥보다는 손위에서 하면 더 재밌어하고 힘을 주어요.

(S교사, 2016. 4. 18. 2차 교사회의)

그 후에 걸음마 연습을 위해 ‘따로따로’ 놀이를 해주었다. 처음에는 벽의 모서리에 아이를 세워놓고 ‘따로따로’ 노래를 불러주면 웃으며 한참을 서 있었다. 어느 정도 익숙해 진 다음에는 벽의 모서리가 아닌 벽면에서 진행하였고, 그 다음에는 기댈 곳이 없이 바닥에 세워 놓고 진행하였다. 이렇게 혼자 설수 있게 연속적으로 수준을 높여가며 놀이를 진행할 수 있었다. 또한 다양한 운동적인 요소가 있으면서도 쉽게 아이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신체활동이라고 하였다

저는 초임교사라 아이들과 수업을 할 때 어색하고 모르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지 부담스러워요. 아이들의 발달에 맞춰서 소근육, 대근육 운동을 해주어야 하는데, ‘단동십훈’을 보면 그런 것들이 골고루 포함 되어 있어서 좋아요. 대근육, 소근육 운동, 그리고 되는 것, 안 되는 것, 상황에 대한 인식도 그렇고, 그래서 ‘단동십훈’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다보면 아이들의 발달에 맞춰서 다양하게 해줄 수 있어서 좋아요.

(S교사, 2016. 5. 2. 3차 교사회의)

단동십훈을 아이들과 함께 하다보면, ‘잼잼, 곤지곤지’ 등의 손가락 운동뿐만 아니라 ‘시상시상, 불아불아’ 등과 같이 허리운동, 다리운동과 함께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운동이 자연스럽게 된다. 또한 ‘업비업비, 도리도리’는 운동

적인 요소 뿐만 아니라 상황에 대한 인식을 하는데 도움을 준다. ‘엄비엄비’는 위험에 대처하는 인식을 키워준다 “애비애비 하면 일단 동작을 멈추고 저를 쳐다봐요. 애비하면 하지 말라는 것을 알아요.”라고 ‘엄비엄비’에 대한 아이들의 반응을 이야기 하였다. 그리고 단동십훈은 교사의 모방 행동으로 아이들의 인지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아함아함’을 보여주면 처음에는 소리가 나니까 쳐다봤어요. 그래서 제가 한○○이의 입에 손을 대니까 소리를 내는데, 자기도 소리가 나니까 신기한지 계속 해요. 그 다음에 손바닥을 대주지 않았는데, 자기가 주먹을 쥐고 입에 대고 소리를 내요. 그런데 그 소리가 아까와는 달랐나 봐요. 그러더니 머리를 흔들면서 소리를 내요. 그 다음부터 제가 ‘아함아함’을 보여주면 주먹을 대고 소리를 내요.

(S교사, 2016. 5. 13. 4차 교사회의)

선생님이 ‘잼잼잼’ 하면 아이들이 따라한다는 건 인지가 된다는 것이죠. 최○○은 노래만 나와도 동작을 해요. 노래를 듣고 이런 동작을 해야 되는구나 알고 있는거죠. ‘ 짹짹’ 하면 손뼉치고, ‘도리도리’하면 싫다고 알아듣고, 놀이 중에 하면 놀이로 받아들여 같이 ‘도리도리’를 하고 그래요. 아무래도 인지가 되니까 구분해서 바로 반응이 나오는 거죠.

(J교사, 2016. 5. 13. 4차 교사회의)

이와 같이 단동십훈의 활용은 영아의 성장발달 시기에 따라 신체운동을 시킬 뿐만 아니라, 대근육·소근육의 발달, 여러 신체기관의 협응, 애착형성 및 사회성 발달, 인지발달, 언어발달 등에 도움이 되며, 이는 선행 연구결과(김정희·유효순, 2011; 유안진, 1990; 이경희, 2012; 이은경·강정원, 2010; 임소영·김은주, 2010)와 일치하고 있다.

(2) 신체접촉을 많이 하는 놀이

J교사는 단동십훈에 대해 ‘신체접촉을 많이 할수 있는 놀이’라고 말하였다. 사전모임에서 단동십훈을 활용하면 아이들과 신체접촉도 많이 할 수 있고, 교

사와의 신뢰가 생겨 그만큼 어린이집 적응도 빨리 될 것으로 기대를 많이 했다. 또한 ‘짝짝궁’ 같은 동작은 가정에서도 많이 하는 놀이로 익숙할 것으로 예상 했으며, 동작이 쉬워서 바로 따라 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연구 초반에 아이들의 관심은 단동십훈보다 J교사가 평소에 해주던 손유희에 더 반응을 보였다. “아이들이 칭얼거릴 때 단동십훈을 해주는 것보다 노래를 불러주는 것이 효과가 크다”고 말했으며, “아이를 집중시키고 놀이를 하는데도 단동십훈 보다는 손유희가 더 효과적이며, 자신 또한 노래를 불러주거나 손유희를 해주는 것이 익숙하고 편하다”라고 생각하였다. 또한 단동십훈이 “부모와 영아간의 놀이로는 효과적일지 몰라도 한명의 교사가 여러 명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에서는 맞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는 ‘선생님이 동작을 하면 아이들이 잘 따라하고 바로 반응을 보여야 한다’는 조급함에서 나타나는 생각이었다. 이후 단동십훈을 계속 적용하면서 아이들이 모방할 수 있도록 시범을 보이는 것보다 직접 손을 잡고 같이 할 때 효과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정○○에게 제가 동작을 하면서 보여주는 것보다 같이 손을 잡고 해보니까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손만 잡아도 웃어요. 자기가 먼저 하면서도 웃고, 최○○은 몸을 좌우로만 흔들었는데, 손을 잡고 하니까 앞뒤로 잘 흔들고, ‘곤지곤지, 도리도리’도 잘하고....

(J교사, 2016. 4. 25. 개별면담)

또한 손유희보다 신체접촉이 더 활발히 이루어지는 단동십훈의 장점도 알게 되었고, 처음 어린이집 생활을 하게 되는 영아들과의 애착관계 형성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처음에는 제가 마주보고 노래하면서 동작을 하면 따라 할 줄 알았는데, 지난주부터 손을 잡고 하니까 아이들도 더 빨리 잘 따라하는 것 같아요. 손을 잡고 ‘곤지곤지’도 알려주고, 그러니까 더 빨리 알아듣고, 안하던 아이들도 따라 해요. 손유희같은 경우는 내가 하는 동작만 쳐다보는데 단동십훈은 마주 앉아서 잡고 하니까 효과도 있고, 재미도 있고, 서로 신체접촉을 할 수 있어서 좋은 거 같아요.

(J교사, 2016. 5. 2. 3차 교사회의)

평소 아이들하고 스킨십을 자주 하긴 하는데, 단동십훈을 하면서 더 자주하게 되었어요. 정○○도 처음에는 제 무릎에 앉지 않고 낫설어 했는데, 지금은 부르면 와서 앉아요. 스킨십을 통한 애착관계는 좋아지는 거 같아요. 우는 것도 금방 그치고....

(J교사, 2016. 5. 13. 4차 교사회의)

단동십훈은 동작중심 놀이로 즐거움을 주고 교사와의 신체접촉을 유도하는 놀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J교사는 어린이집 생활을 시작한지 1달 정도 된 영아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교사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데 단동십훈이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말한다. 아이들과 단동십훈을 하다보면 저절로 신체접촉을 많이 하게 되고, 신체접촉을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친밀감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는 영아기 전래아기놀이가 양육자와 영아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한 관계증진 활동으로서 가치가 있음을 밝힌 연구결과(김정희·유효순, 2011; 이경희, 2012; 이은경·강정원, 2010; 이행숙·한유진, 2008)를 지지하는 것으로, 단동십훈은 일반 손유희와는 달리 교사와 영아의 자연스러운 신체접촉을 유도하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유도하며 교사와 애착관계 형성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놀이임을 알 수 있다.

(3) 놀이는 더 즐겁게, 쉴 때는 더 편안하게 하는 단동십훈

전래아기놀이는 아기를 움직이고자 할 때 스스로 충분히 움직이게 하고, 쉬고자 할 때 편안히 쉴 수 있게 하여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돕는다(임소영, 2009). 단동십훈은 그 자체로서 놀이가 되기도 하지만, 놀이를 더 즐겁게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J교사가 정○○, 하○○과 함께 ‘코카콜라 맛있어~’ 노래를 부르며 ‘다리짚기’놀이를 하고 있었다. 이 놀이가 재밌어 보였는지 1세반 채○○, 이○○가 J교사에게 다가간다. 이 때 J교사가 하○○를 무릎에 앉히고 ‘시상시상, 달궁

달궁, 짹짹’ 놀이를 시작하자 서로 J교사 무릎에 앉겠다고 즐거운 다툼이 일어난다. 1세반 담임선생님이 정○○, 1세반 채○○ 를 무릎에 앉히고, J교사는 하○○, 1세반 이○○를 무릎에 앉히고, 서로 마주보고 ‘짹짹, 도리도리’ 하자 모두 소리 내어 웃으며 정확하지는 않지만 동작을 따라한다.

(2016. 4. 21. 연구자 관찰)

0세반, 1세반 영아들이 어린이집이 위치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산책을 하였다. 등나무 그늘 아래 자리를 만들고 앉아서 쉬는 시간을 갖았다. J교사가 ‘애들아 단동십훈 한번 해볼까?’ 하며 ‘도리도리’, 짹짹’ 노래를 불러주었다. 아이들이 제각기 동작을 하며 소리 내어 웃는다. ‘도리도리’만 하는 아이, 박수만 치는 아이, 몸을 흔드는 아이, 제각각이지만 모두 즐거워 한다. 안전상의 문제로 오래 하지는 못했다.

(2016. 5. 11. 연구자 관찰)

참여교사들은 처음에 연구를 시작할 때는 단동십훈의 동작을 알려주고 신체활동을 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는데, 만 0세 아이들에게 단동십훈을 기능적으로 알려주는 것은 영아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들어 이후에는 즐거운 놀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동작도 한 가지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확장활동을 시도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짹짹’의 경우 마라카스를 손에 들려서 소리를 다르게 내어 보기도 하고, ‘곤지곤지’를 왼손은 펴고 오른손 검지 손가락으로 짚게 하는 것 외에 왼손, 오른손 번갈아 가며 다섯 손가락을 다 사용하도록 알려주기도 하였다.

어린 아기에게 움직이는 것은 아기가 스스로 해나가야 하는 것이지만, 쉬는 것은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다(임소영, 2009). 이는 양육자가 아기에게 ‘자궁 속 같은 환경’ 즉 편안함을 느끼게 해줘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양육자와의 따뜻한 접촉과 리듬감 있는 흔들림과 노래가 아기들을 편하게 한다고 주장하였다. 참여교사들은 영아들이 쉴 때도 편안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고 하였다.

0세 아이들이다 보니 안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냥 안고 있는 것보다 단동십훈을 하면 좋아하긴 해요. 아이들이 어리다보니 짜증낼 때가 많은데, 아이

를 안고서 ‘우리애기 자장자장’이나 ‘불아불아 누구누구’ 이렇게 노래도 불러주고 저도 같이 움직이게 되니까 아이들이 편안해 하는 거 같아요.

(S교사, 2016. 4. 25. 개별면담)

영아들을 재우거나 달래줄때 안아주고, 천천히 흔들어주며, 노래를 불러주는 모습은 참여교사 뿐만 아니라 아이를 기르는 대부분의 부모 모습일 것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은 단동십훈의 노래에 아이가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기를 기원하는 의미가 담겨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전래동요나 단동십훈의 노래를 부르려고 노력한다고 하였다.

2. 단동십훈 활용에 따른 영아들의 반응

본 연구의 참여교사인 J교사와 S교사는 사전 교육을 받은 후 단동십훈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연구에 참여하였다. 하지만 단동십훈을 활용해보면서 영아들이 단동십훈 동작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에 조금함을 보였다. 결국 3~4주 정도 익숙해지는 시간이 지난 후 영아들에게도 다양한 동작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놀이로서 즐기게 되었다. 참여교사들이 작성한 교사관찰일지와, 개별면담을 통해서 나타난 영아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다. 단 6주간의 연구기간으로는 동작활동의 변화 외에 다른 발달 영역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가 없었다.

1) J교사 - 정○○, 하○○, 최○○

J교사가 담임으로 있는 영아는 정○○, 하○○, 최○○ 3명으로 아장아장 ‘걸는 시기’의 영아들이다.

(1) 정○○ (2015년 1월 1일생 / 2016년 3월 1일 입소)

정○○은 2016년 3월에 입소한 신입원아로 내성적인 성격이다. 연구가 시작된 처음 1주는 반응이 없었으며, 교사의 단동십훈 시도에 외면하였다. 2주

부터 ‘잼잼, 곤지곤지’ 동작을 조금씩 따라 하기 시작하였다.

(점심시간) 움직이지 않고 교사 점심 먹는 것을 쳐다보다가 한 쪽 팔을 교사의 무릎에 기댄다. 그 자세로 잠깐 동안 있다가 한 손을 펴고 다른 손으로 ‘곤지곤지’ 하는 흉내를 낸다. 교사가 쳐다보니 멈췄다가 다시 ‘곤지곤지’를 한다. 2~3번 하고는 멈춘다.

(2016. 4. 14. J교사 관찰일지)

3주부터 ‘곤지곤지, 아함아함, 불아불아, 시상시상’ 동작을 교사와 함께 하기 시작하였으며, 놀이시간도 길어지기 시작하였다. 특히 ‘아함아함’ 은 교사가 정○○ 입에 손바닥을 대고 소리를 내게 하는데, 거부하지 않고 기다려 주었다. 4주부터는 교사와 자연스럽게 동작을 하였으며, 간혹 노래를 불러주면 정○○이 먼저 움직이기도 하였지만, 교사와 눈이 마주치면 동작이 작아질 때도 있다.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진행되었고 집에서도 잘한다고 하였다. J교사는 4차 교사회의에서 “정○○가 처음 어린이집에 적응하는 것도 어려워하고 성격도 내성적이어서 고민이었는데, 단동십훈을 통해 스킨십이 많아지고 신뢰감도 생긴 것 같다”고 평가하였다.

(2) 하○○ (2015년 2월 25일생 / 2015년 6월 9일 입소)

하○○는 10개월 정도 어린이집에서 생활을 하였다.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었으며, 성격은 밝은 성격으로 책, 장난감을 좋아하고, 호기심이 많다. 하○○은 6주 동안 단동십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교사가 칭찬을 하거나, 노래를 불러주며 동작을 유도할 때, 마사지를 해주는 등 기분이 좋을 때 ‘곤지곤지, 잼잼’을 3~4회 정도 따라하였다. J교사는 그동안 어린이집에서 해주던 노래나 놀이를 더 좋아한다고 하였다.

(3) 최○○ (2015년 3월 24일생 / 2016년 4월 1일 입소)

최○○은 4월에 어린이집에 입소하여 적응단계에 있는 신입원아이다. 그러

나 적응과정이 어렵지 않았으며, 어린이집 생활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졌다. 별빛반에서 단동십훈을 제일 잘 따라하고 노래를 좋아해서 불러주면 춤을 추듯 몸을 흔든다. 최○○은 1주부터 . ‘불아불아, 시상시상, 짹짹, 잼잼’ 동작을 따라하였다. 3주부터는 ‘도리도리, 아함아함’ 동작을 추가로 하였다. ‘질나비 훨훨’과 걸음마 시기에 필요한 ‘섬마섬마’를 제외하고 단동십훈 동작을 잘 따라하였다.

이상의 J교사가 담당하는 3명 영아의 사례를 보면 첫째, 단동십훈은 신체적인 접촉을 유도하여 영아와 교사간의 신뢰감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는 어린이집 초기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단동십훈의 활용은 어린이집에 적응하는 신입원아에게 더 효과적이었다. 10개월 전부터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아의 경우 단동십훈 보다 기존에 해오던 놀이를 더 좋아하였다. 어린이집에서 이미 다양한 경험을 한 원아에게는 다양한 형태의 단동십훈 놀이가 필요하였다.

2) S교사 - 한○○, 안○○

S교사가 담임으로 있는 영아는 한○○, 안○○, 2명으로 ‘기어 다니는 시기’의 영아들이다.

(1) 한○○ (2015년 4월 26일생 / 2016년 3월 1일 입소)

한○○은 2주까지는 ‘짹짹’에 반응을 보이며 동작을 따라하였고 다른 동작에는 반응이 없었다. S교사는 걸음마 연습을 시키기 위해, ‘불아불아, 섬마 섬마’ 동작을 시켜보았으나 잘하지 못하고 힘들어 하였다. 3주에 교사가 한○○의 손을 잡고 ‘시상시상’ 앞뒤로 흔들어 주니 재밌어 하며 자꾸 누우려고 하였다. 또한 교사가 먼저 ‘아함아함’ 시범을 보이고 교사의 손을 한○○의 입에 대고 ‘아함아함’ 동작을 반복하니 웅얼이를 하며 관심을 보였다. 4주부터는 ‘불아불아, 시상시상’ 같이 다리에 힘을 주는 동작을 많이 하기 시작하

였고, ‘도리도리, 짹짹’을 할 때가 많아졌다. 위험한 상황인 ‘업비업비’에도 반응을 보였다. 6주까지 ‘불아불아, 도리도리, 짹짹, 섬마섬마, 아함아함, 업비업비’ 6개 동작에 관심이 많았고 잘 따라했다. S교사는 한○○이 일어서서 걸어 다니는 것을 좋아하며, 부쩍 호기심이 많아져서 그와 관련된 동작을 잘 하는 거 같다고 한다.

(2) 안○○ (2015년 8월 24일생 / 2016년 3월 1일 입소)

안○○은 1주에는 단동십훈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2주부터 다리의 힘을 기르기 위해 ‘섬마섬마’를 해주었는데 관심을 보이며 즐거워 했다. 그 외 다른 동작에는 웃는 정도의 반응이었다. 그 이후로는 ‘섬마섬마, 따로따로’ 등의 동작은 잘 하였고 즐거운 반응을 보였으며, 기분 좋을때 ‘짹짹, 도리도리, 불아불아, 시상시상’ 등에 관심을 보이며 따라 하기도 하였다. 안○○은 동작이 크지 않고, 정확하지는 않지만 ‘단동십훈’ 동작에 관심을 보일 때는 웅얼이를 하거나, 미소를 보이는 행동을 보인다.

S교사가 담당하는 2명 영아의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한○○, 안○○이 월령 차이는 나지만 같은 걸음마를 하려는 시기로 ‘섬마섬마, 따로따로’ 등 다리에 힘을 주고 몸의 균형을 잡는 ‘걷는 연습’에 도움을 주는 동작에 관심을 많이 보였다. 또한 호기심이 많은 한○○은 단동십훈의 여러 동작을 따라하고 관심을 가지는 반면, 안○○은 한○○에 비해 여러 동작을 따라하지 않았으며, 관심을 보이는 경우 웅얼이, 웃음 등으로 표현하여 정확한 동작을 많이 보여주지는 않았다. 이는 성격, 성별의 차이로 보여 진다.

3) 단동십훈 활용과정의 특징

이상 5명의 영아들은 단동십훈의 활용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였다. 첫째, J교사가 담당하는 정○○, 하○○, 최○○를 비교해 보면, 재원중인 영아보다 새로 입소한 영아가 단동십훈 동작을 잘 따라하고 관심을 보였다.

10개월 정도 어린이집 생활을 하여 현대적인 동요와 율동에 익숙해진 영아의 경우 기존의 놀이를 더 좋아하였다.

둘째, S교사가 담당하는 한○○, 안○○의 경우를 보면, ‘섬마섬마’와 같이 걸음마를 준비하는 시기에 필요한 동작은 영아들이 집중적으로 관심을 보였으나 다른 동작에 비해서 반응이 지속되는 시기가 짧았다. ‘섬마섬마’의 경우 손위에 올려놓고 중심을 잡는 동작으로 처음에는 즐거워하였으나 2~3주 후에는 일어서지 않고 주저앉았다. 바닥에 내려놓고 하는 ‘따로따로’의 경우도 같은 반응을 보이거나 벽과 같이 의지할 곳을 찾았다. 이는 높이에 대한 공포감이나 넘어질 것에 대비한 행동으로 보여 진다.

셋째, 교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동작은 빨리 익숙해지고 반응도 빠른 반면, ‘도리도리’와 같이 물리적인 도움 없이 모방행동을 하는 동작은 반응이 느렸다.

목을 가누는 시기에 ‘도리도리’를 한다고 하는데, 하면서 보니 돌 전의 아이들이 제일 잘해요. 고개를 좌우로 흔드는 동작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쉬울 거 같은데 아이들은 의외로 못해요. 소리가 들리면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쳐다보는 것은 하는데, ‘도리도리’는 자기가 목을 조절해서 흔들어야 하니까 어려운 거 같아요. 책하고는 다른 부분이 있어요.

(J교사, 2016. 5. 13. 4차 교사회의)

‘불아불아, 시상시상, 달궁달궁’ 이런 동작은 손을 잡고 하면 모두 따라하고 반응을 보이는데, ‘도리도리’는 본인이 안하면 못하는 동작이에요. 그런데 제일 빠른 시기에 할 수 있는 동작으로 소개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제일 안돼요.

(S교사, 2016. 5. 13. 4차 교사회의)

‘도리도리’는 목을 가눌 수 있을 때 시작하는 동작으로 단동십훈에서 처음 시작되는 놀이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영아들의 반응이 다른 동작보다 느리고, 보여 지는 횟수 또한 적었다. 이는 단동십훈의 동작별로 시기를 나누는 것에 대하여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

넷째, ‘질라아비 훨훨’과 같이 동작이 연속적으로 이어져야 하는 경우, ‘나비야’ 같은 동요를 불러주는 것이 활용하기에 더 효과적이었다고 한다. 참여교사들은 ‘질라아비 훨훨’은 노래를 불러주기도 힘들고 동작하고 맞추기도 어렵다고 하였다. 2음절이나 3음절로 이루어진 다른 동작의 노래와는 달리 ‘질라아비 훨훨’은 활용상 어려움이 있었으며 동요를 불러줄 때 편하고 반응도 더 좋았다고 한다.

3. 단동십훈 활용에서 고려할 점

1) 일상에서 반복적이며 다양한 놀이 활용

본 연구의 참여교사인 J교사와 S교사는 “단동십훈이 영아들에게 잘 적용되면 아이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반복사용이 중요하다”고 이야기 하였다. J교사와 S교사는 단동십훈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연구에 참여하였다. 하지만 영아들에게 단동십훈을 활용해 보면서 ‘아이들에게 정말 효과가 있나?’ 하는 의문점이 들기 시작하였고, 영아들이 단동십훈 동작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에 조금함을 보였다.

(단동십훈을) 시간을 정해두고 하지는 않고 원에서 틈틈이 해요. 놀이를 진행할 때 즐겁게 따라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오래는 하지 못하고 맥이 끊겨요. 아직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들어 온지 얼마 되지 않고 처음이라 그런 것 같아요.

(J교사 2016. 4. 11. 개별면담)

정○○는 가끔 ‘잼잼’을 따라 해요. 2~3번 하고 나서 바로 ‘반짝반짝’으로 바뀌고 그래요. 또 한○○는 ‘짝짝궁, 짹짝궁, 까꿍’ 하면서 얼굴을 가까이 대고 해주는데 그냥 웃기만 해요.

(S교사 2016. 4. 12. 개별면담)

교사들이 조금해 하는 부분은 반응이 없거나 짧은 것과 동작이 정확하지

않는 부분이었다. 연구자와 교사들은 영아들의 상황에 대한 논의 후에, 영아들이 반응이 없는 현상을 ‘신입원아로 어린이집의 낯선 환경’ 과 ‘인지 능력과 운동능력이 발달하지 않아서’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영아들의 발달특성에 맞게 도움을 주고 동작을 지속적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단동십훈에 대한 반응은 3~4주부터 눈에 띄게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 이에 대해 J교사는 “단동십훈이 아이들에게 어려운 동작은 아니어서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 교사들과 아이들에게도 익숙해 졌다.” 라고 이야기하였다. 단동십훈의 반복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특정한 시간 구분 없이 아이들의 일상생활에서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단동십훈이 전래아기놀이로 친숙한 놀이방법이지만, 영아들의 수준에 맞는 ‘수업준비’가 필요하다. 단동십훈은 특별한 도구나 놀잇감 없이 양육자와 영아가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 동작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러므로 영아별로 유연성을 가진 수업내용, 즉 ‘단동십훈을 이용해서 어떻게 놀아줄 것인가’하는 준비가 필요하다.

아이들이 할 수 없을 만큼 동작이 어렵지는 않아요. 동작이 미숙하거나 표현이 어려우면 손을 잡고 도와주면 곧 따라하게 되요. 단순히 시범을 보이는 것보다 직접 손을 잡고 ‘곤지곤지, 아함아함’ 이런 동작을 해주면 훨씬 잘하고 재미있어라 해요. 그렇게 계속해 주다 보면 혼자서도 하게 되요.

(J교사, 2016. 4. 18. 2차 교사회의)

‘ 짹짹 짹짹 ’은 노래 부를 때, 칭찬할 때, 손뼉 치거나 생일축하 노래할 때 접목시켜서 하니까 조금씩 따라하는 거 같아요. 그리고 간식 먹을 때나 점심을 먹을 때와 같이 입과 관련된 일이 있으면 ‘아함아함’ 소리도 내보고, ‘ 짹짹 ’은 ‘나비야’ 노래와 접목시켜서 하니까 조금씩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J교사, 2016. 4. 18. 2차 교사회의)

교사가 단동십훈 활용방법에 신경을 쓰고 다양한 매체와 연관을 시켜 적용하다보면 영아들도 지속적으로 활동하며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단동십

훈을 모든 영아들에게 획일적인 방법으로 적용하면 아이들의 흥미와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없다. 단동십훈을 ‘아이들의 일상에서 어떻게 연관시키고, 영아 주변의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놀이를 해줄 것인가’ 하는 고민이 필요하다.

2) 영아의 특성과 상황에 대한 이해

영아들에게 단동십훈을 적용해 보는 과정을 통해 참여교사들은 영아들의 특성과 어린이집 생활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영아기는 전체적으로 왕성한 발달을 하는 시기이지만 성인과 같이 발달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시기는 아니므로, 영아의 수준에 적합한 놀이를 해야 한다. 영아들이 생활하는 어린이집은 교사와 또래들과 사회적 관계를 맺는 단체생활 공간이다. 영아의 개별특성에 맞게 놀이를 진행해야 한다는 인식은 단체생활이라는 현실에 종종 부딪히게 된다. 연구 초반 단동십훈을 활용함에 있어 교사중심의 획일적인 모습이 보여 지는 이유였다. 그러나 영아들이 단동십훈에 관심을 보일 수 있도록 집중을 시키는 방법을 고민하고 어린이집의 하루 일과 중에 즐겁게 활동할 수 있는 분위기를 찾아보니 아이들의 특성과 생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고 한다.

영아들의 특성을 반영한 수업에 대해서 참여교사들은 “단동십훈의 정확한 동작을 위해서 아이들의 손을 잡고 연습을 시키는 관점이 아니라, 아이들의 동작이 정확하지 않더라도 인정해 주고 즐거운 놀이로 함께 하는 관점이 중요하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책이나 동영상에 설명되어 있는 정확한 동작과 방법이 아니더라도,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놀이할 수 있다면 되고, 익숙해진 아이에게는 좀 더 정확한 동작을 가르쳐 주고, 더 익숙해지면 확장된 동작을 가르쳐 주는 방식으로, 유연하고 긍정적인 교사의 태도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로는 단동십훈이 돌 전후 아이들만을 위한 놀이가 아니었다. 연구기간동안 다른 연령의 아이들이 모여서 즐겁게 놀이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고, 참여 교사들 또한 “0세 뿐만 아니라 1세 반 아이들이 더 좋아 한다”라고 하였다. 연구 초기에는 ‘돌 전·후의 아기 놀이’라는

고정관념으로 1세 이상의 영아에게는 적합하지 않거나 다른 놀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단동십훈이 ‘0세들만의 특정한 놀이’가 아닌 ‘관심 있는 모든 영아들이 함께 하는 놀이’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이처럼 단동십훈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영아들의 특성과 적용방식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고, 교사중심의 획일적인 사고와 교수방법에 대해서 반성하고, 영아들의 현재 상태에 집중해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게 되었다.

3) 가정과 연계

어린이집에서 영아들에게 단동십훈이 익숙해지자, J교사는 가정과 연계를 위해 단동십훈의 내용, 활동방법을 부모님과 공유하고 함께 실천하면 더 효과적일 거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몸으로 놀아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하는 의도였다.

이제 아이들이 단동십훈을 해주면 잘 따라해요. 아이들이 하는 모습이 너무 귀엽고, 재미있어라 하니까. 이 모습을 엄마들 에게도 보여주고 싶어요. 그리고 가정에서도 부모님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면 더 잘 할것 같아요. 전에 정○○ 엄마가 어떤 놀잇감이 좋은지 물어 본적이 있는데, 놀이감 보다 아이들과 이렇게 단동십훈 하면서 놀아주면 더 좋을것 같아요.

(J교사, 2016. 4. 25. 개별면담)

처음부터 가정과 연계해서 단동십훈을 활용했다면 아이들이 더 빨리 반응을 보였을 거예요. 효과도 더 좋고. 제가 맡은 한○○, 안○○은 부모님 두 분 모두 맞벌이라 할머니가 하원할 때 오시는데, 할머니들은 더 잘하시지 않으실까 생각돼요.

(S교사, 2016. 4. 25. 개별면담)

학부모들의 단동십훈에 대한 이해는 ‘도리도리, 짹짹, 찹찹, 곤지곤지’ 정도만 알고 있었으며, 단동십훈이라는 말도 연구 동의서를 작성할 때 처음 들

었다고 하였다. 그래서 참여교사는 단동십훈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 부모님께 전달하고 각 영아별로 어떤 동작을 잘하고, 어떤 상황에서 반응을 보이는지 설명해주었다. 하지만 연구기간이 짧아 가정에서도 꾸준히 사용되는지, 아니면 어린이집에서의 활동만으로 끝나는지 알 수 없었다. 연구가 끝난 후 학부모 개별면담을 통해 학부모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는데, 가정에서의 활용은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제가 잘 몰라서 많이 해 줄수가 없었어요. 제가 ‘ 짹짹, 뽀뽀 ’ 이런 건 알겠는데 처음 보는 동작들이 많아서 노래를 어떻게 불러줘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머님(할머니)이 올라와 계셔서 할머니가 많이 도와 주셨어요. 할머니가 ‘ 도리도리, 짹짹 ’ 이런 건 많이 해주시는거 같아요.

(정○○ 어머니, 2016. 5. 17. 개별면담)

제가 집에 오면 늦은 시간이라 안○○하고는 놀아줄 시간이 없어요. 집 정리 하고나면 자야 될 시간이 돼서 많이 해줄 수가 없었어요.

(안○○ 어머니, 2016. 5. 17. 개별상담)

그러나 참여교사들은 어머니들과 단동십훈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공유할 수 있는 주제가 있어서 좋았다고 하였다. 5년 경력이 있는 J교사, 신입교사인 S교사 모두 학부모와 이야기를 할 때면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해야 할지 고민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러나 단동십훈에 대해 어머니들과 이야기를 하는 기회가 많아졌고, 어머니들 역시 교사에게 어린이집에서의 아이들이 어떻게 하고, 어떤 동작을 잘하는지 물어봄으로써 친근해졌다고 한다.

예전에는 아이들이 등·하원 할때 어머님들과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하나 부담스럽고 쑥스럽고 그랬는데, 지금은 많이 편해졌어요. 집에서는 많이 못해주는데, 선생님은 바쁘데도 해주신다면서 칭찬도 해주세요.

(S교사 , 2016. 5. 13. 4차 교사회의)

단동십훈을 가정과 연계를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어머니들과 소통하게 되었어요. 공통된 관심사로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결국 어머니들

과 저와 신뢰감이 생긴 것 같아요.

(J교사 , 2016. 5. 13. 4차 교사회의)

또한 영아들의 발달에 관한 내용이나 양육에 필요한 의견을 이야기 할 때는 단순히 아이들을 보육하는 교사가 아닌 전문성을 갖춘 교사라는 생각이 들어 보육교사로서 자긍심이 생긴다고 하였다. 가정과의 연계는 단동십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문제에서 출발했지만 학부모와 교사 그리고 영아가 공통된 주제로 연결되는 소통의 장이 되었으며, 보육교사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게 되었다.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만 0세반에서 단동십훈을 활용 했을 때, 단동십훈에 대한 교사인식의 변화과정, 영아들의 반응과 효과, 단동십훈 적용과정에서 고려해야할 사항 등을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자는 참여관찰, 참여교사와 심층면담 및 교사회의, 관찰일지를 통해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참여교사가 인식한 단동십훈의 가장 큰 장점은 영아들의 발달시기에 맞는 다양한 신체활동을 제공하여 성장발달에 도움을 준다는 점이다. 단동십훈의 10가지 동작은 대근육 운동, 소근육 운동, 균형감각, 여러 기관의 협응 등 다양한 운동적 요소가 들어있으며, 모방행동을 통한 인지발달, 의사표현능력 등에 도움이 된다. 또한 교사-영아간의 신체접촉을 유도하여 교사와 신뢰감이 형성되고 어린이집 환경에 적응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단동십훈은 그 자체로서 하나의 놀이가 되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확장 활동을 유도하여 놀이를 더 즐겁게 한다. 또한 영아들을 채우거나 달래줄때 노래와 함께 더욱 편안하게 설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특히 단동십훈의 노래에는 아이가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기를 기원하는 뜻이 담겨있어 더욱 의미가 있다.

둘째, 단동십훈에 대한 영아들의 반응은 각기 다르게 나타났다. 모두에게 익숙한 ‘도리도리, 짹짹, 잼잼’ 등은 모든 영아가 반응을 보였으며, 특히 걸음마 단계를 준비하는 영아들은 다리에 힘을 주고 균형감각을 익히는 ‘섬마섬마’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또한 10개월의 어린이집 경험이 있는 영아는 단동십훈 보다는 기존에 교사가 불러주던 노래나 놀이에 더 관심을 보였으며, 새로 들어온 영아들이 단동십훈에 더 많은 관심을 보였다. 어린이집 경험의 차이는 다양한 형태의 놀이법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단동십훈의 노래와 동작은 2음절, 3음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런 규칙에서 벗어난 ‘질라아비 훨훨’의 경우 단동십훈 노래보다 동요 활용이 더 효과적 이었으며, ‘도리도리’와 같이 시각적인 모방행동만을 요구하는 동작은 교사가 신체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동작보다 반응이 느리게 나타났다. 이는 ‘도리도리’가 머리를 가눌 수

있는 3개월 전·후의 영아에게 활용할 수 있는 동작이라는 선행연구(이경희, 2012; 임소영·김은주, 2010)와 다른 결과로 영아의 성장 발달시기에 따른 단동십훈의 활용시기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셋째, 단동십훈은 영아의 발달과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활용이 중요하다. 영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교사 중심의 획일적인 수업이 될 수 있다. 유아교육기관에 다니는 영아의 경우 성장과 발달이 완성된 단계가 아니며, 어린이집이라는 낯선 환경에서 교사, 또래들과 사회적 관계를 맺는 단체생활 공간에서 생활한다. 이러한 영아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단동십훈을 가르치는 수업’이 아닌 ‘단동십훈을 이용해서 같이 놀이를 하는’ 인식이 필요하다. 또한 단동십훈 활용의 대상은 연령의 구분 없이 ‘놀이를 즐기는 아이들’로 확장될 수 있다. 그리고 단동십훈의 활용은 가정과의 연계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교사와 학부모간의 신뢰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의 교육적 함의를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단동십훈은 교사와 영아의 관계 형성에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은 단동십훈이 영아들에게 다양한 신체활동을 유도하여 자연스럽게 교사-영아간의 신체접촉이 이루지는 점을 가장 큰 장점으로 지적했다. 단동십훈의 여러 동작은 신체접촉을 통해 교사-영아간의 신뢰감을 형성하고 의사소통에 도움을 주었다. 참여교사들은 의사표현이 서툰고 어린이집 환경에 아직 적응이 되지 않은 영아들에게 놀이를 제안하고, 음식을 먹을 때, 쉬고자 할 때 등 다양한 일상생활에서 단동십훈을 활용하였다. 그러나 영아와의 상호작용은 몸짓, 소리, 표정 등으로 타인과 대화하고 자신이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상황을 이해하는 영아의 특성을 반영하여 현장에서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안선희·김지은, 2010).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영아들의 발달과 상황에 맞게 적용되는 단동십훈은 개별 영아의 특성을 고려하게 되는데, 영아들을 이해하고 의사소통에 도움을 주며,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는 이러한 경험은 영아반 교사들에게 단동십훈을 안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참여교사들은 단동십훈을 영아들과 함께 하는 즐거운 놀이로 인식하고, 영아들이 흥미와 관심을 보이는 상

황을 잘 포착하여 적용함으로써 거부감 없이 점차 익숙해지는 과정을 보였다. 이는 단동십훈이 영아들에게 일방적으로 학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활속에서 자연스럽게 활용될 필요가 있으며, 교사와 아이 모두에게 즐거운 놀이와 경험이 될수 있도록 다가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단동십훈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주입식 교수방식을 탈피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구 초반 참여교사들은 영아들의 발달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획일적으로 단동십훈을 적용한 결과, 단동십훈의 효용성에 의심을 갖게 되고 조급함을 가지게 되었다. 결국 단동십훈을 배우는 수업시간을 정한다든지, 구조화된 환경을 조성하여 단동십훈과 유사한 동작을 유도하는 등의 오류를 경험하게 되었다. 그러나 결국 단동십훈은 영아들의 생활과 연결되었다. 자유선택시간의 즐거운 놀이로, 걷고 싶어 하는 아이들의 걷는 훈련으로, 음식을 먹기 전의 율동으로, 휴식을 취할 때는 편안한 흔들림으로, 잠자리에서는 조용한 노래로 연결이 되었을 때 영아들도 더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단동십훈을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동요와의 접목, 놀이와의 접목, 언어적 상호작용, 다양한 동작의 확장 등은 영아들의 흥미와 관심을 높이고 높은 참여를 이끌어 내었다. 이러한 적용과정은 어린이집에서 단동십훈을 활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이나, 다양한 형태의 교수방법을 모색하는 교사들에게 좋은 예시가 될 것이며, 단동십훈의 활용법이 폭넓게 개발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단동십훈의 활용과정은 참여교사들이 영아들을 더 잘 이해하도록 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교수전략을 수정하고 판단하는 경험을 가지게 되었다. 보육교사는 영아들의 특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김정원 외, 2002). 또한 어린이집에서의 영아들의 일과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 어린이집에서 영아반의 하루일과는 ‘놀이’의 시간이며, ‘보살핌’과 ‘편안함’을 느끼는 과정이면서 ‘낮설음’과 ‘어려움’을 느끼는 과정이다(노희연, 2014). 본 연구에서 참여교사들은 영아들의 발달 특성을 이해하면서도 단동십훈 동작에 집중하고 모방할 것을 기대하였다. 단동십훈을 활용하여 영아들과 함께 놀이로 진행되는 과정은 교사들이 영아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다양한 변화를 느끼면서 어린이집에서의 생활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는 과정이었다.

또한 교사중심의 교육을 반성하고 영아 중심의 교육으로 다가서는 모습을 보였다. 본 연구의 참여교사는 사전모임에서 영아는 안전이 최우선이며,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해야 한다고 하였다. 대부분의 영아반 교사들은 영아들의 어린이집 생활은 돌봄이 강조되고 교육활동은 어려운 일로 인식되고 있다(양지영, 2007). 이러한 보육교사의 역할에 대한 갈등은 영아중심의 양육법이면서 놀이인 단동십훈의 활용과정에서 줄어들 수 있으며, 전문가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단동십훈은 영아들에게 현실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교육활동으로서 어린이집에서의 생활과 배움을 조화롭게 이룰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방법이다.

넷째, 교사-부모간의 신뢰 형성에 도움을 준다. 참여교사들은 연구 중반에 가정과의 연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단동십훈을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활용하여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였다. 참여교사는 단동십훈의 동작과 의미를 인쇄하여 가정통신문으로 보냈으며, 부모들에게 영아가 잘하는 동작, 상황별로 선호하는 동작, 발달특성에 맞는 동작 등을 이야기 하면서 부모와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이 되었고 신뢰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또한 가정에서 부모-영아가 단동십훈을 활용함으로써 단순한 동작이 아닌 부모와 영아간의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연구기간이 제한되어 있는 문제로 교사-부모 간의 충분한 상호작용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추후 부모 교육을 통해 보완할 예정이라고 참여교사는 말하였다. 이처럼 단동십훈의 활용이 가정과의 연계를 이루면서 교사와 학부모의 관계가 강화 되고, 자연스러운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부모와의 관계 강화는 추후 교사의 교육활동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가정과 어린이집의 연계강화는 부모들로 하여금 영아에 대한 관심과 애정의 증가로 이어져 아이의 특성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이숙화 외, 2012).

다섯째, 본 연구의 참여교사는 단동십훈의 활용과정을 통해 보육교사로서의 전문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경력교사인 J교사는 기존에 해오던 손유희 활동의 장·단점을 파악하게 되었고, 단동십훈을 함께 활용함으로써 다양한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자신의 전문성이 신장되었다고 말한다. 또한 신입교사인 S교사는 신체 동작적 요소, 인지 발달적 요소, 애착관계

형성, 신체기관들의 협응 등 다양한 긍정적인 요소가 포함된 단동십훈은 수업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단동십훈의 활용은 교사의 전문성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어린이집과 같은 유아교육 현장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교육내용이다.

본 연구를 통해 단동십훈을 만 0세반에서 활용하는 것은 교사가 영아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교사-영아-부모의 긍정적인 관계에 영향을 미치며, 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보육과정을 다양하고 즐겁게 구성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긍정적인 결과를 고려할 때 어린이집에서의 만 0세 영아들의 보육방법으로 단동십훈의 도입과 확대를 위한 관심이 요구된다.

2. 제언

본 연구는 질적연구 방법의 하나인 사례연구로 진행되었다. 사례연구는 기존의 이론을 검증하고자 할 때, 희귀하고 독특한 환경의 사례, 대표적이고 전형적인 사례 등에 유용한 연구방법이다(Yin, 2009). 단동십훈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활용에 대한 영아의 반응을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써 교육적 시사점을 찾고자 한 연구의 결과를 모든 영아반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위에서 살펴본 결론을 중심으로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단동십훈의 활용은 참여교사의 경력과 이해의 정도, 활용능력 등에 영향을 받는다. 또한 영아 개개인의 특성과 구체적 상황, 환경적 요인에 따라서도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서울 소재의 가정어린이집 1개소의 영아 5명과 담임교사 2명으로 진행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다양한 형태의 보육기관에서 폭넓은 연구가 이루어져 그 내용을 풍부하게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처음 어린이집에서 생활하게 되는 만 0세를 대상으로 단동십훈을 활용하였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연령 혼합반, 단일반, 1세반, 2세반 등 다양한 학급의 형태로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단동십훈 활용에 대한 차이점과 효과, 활용의 어려움, 다양한 적용방법에 대한 광범위한 질적 연구와

양적연구가 병행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단동십훈의 활용을 어린이집 내에서의 교사-영아간의 보육활동으로 국한시켜 결론을 도출하였다. 추후 가정과의 연계를 시도하였으나, 연구기간의 제약으로 결과를 도출해 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보육기관에 맡겨지는 영아는 보육교사, 또래와 이차적인 사회적 관계를 맺게 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가정-기관-영아의 관계 속에서 단동십훈의 활용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참 고 문 헌

- 강순원, 강자경, 김예랑, 유희정, 이민주, 조규청, 조순영, 허영림. (2011). 영
유아의 마음을 여는 보육학 개론. 경기도, 오산:한신대학교 출판부
- 권중돈, 김동배. (2009).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서울:학지사.
- 김경혜, 김진숙, 박진옥, 윤은영, 이유미, 정진화. (2012). 아동발달. 서울:동문
사.
- 김경희. (1986). 아동심리학. 서울:박영사.
- 김광호, 조미진. (2012). EBS 다큐프라임-오랜된 미래 전통육아의 비밀. 서
울:라이온스북스.
- 김두범, 김현희, 안수정. (2012). 영유아를 위한 동작교육. 경기도, 파주:양서
원.
- 김백용. (2000). 원전 천부경. 서울:태웅.
- 김선경. (2015). 영아의 전래동요 경험이 갖는 의미.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숙경. (1997). 한국전래놀이노래. 서울:이진출판사.
- 김영미. (2006). 한국 아동 전통놀이의 재조명을 통한 현대놀이의 비판적 고
찰.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주. (2006). 영유아를 위한 영역별 전래놀이의 이론과 실제. 경남, 울산:
울산대출판부.
- 김영천. (2012). 질적연구방법론1 Briccoleur. 경기도, 파주:아카데미프레스.
- 김은주, 이영경, 연희정. (2014).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전통육아에 대
한 이미지 분석: Q방법론적 접근.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0(5),
273-298.
- 김정원, 김유정, 배인자. (2002). 어린이집 영아반 교사의 현직 교육의 실태와
요구에 관한 연구. 영유아교육연구, 5, 139-159.
- 김정일. (2005). 선기요가생활명상. 서울:태웅출판사.
- 김정희, 유효순. (2011). '전래놀이를 활용한 어머니와 영아의 상호작용 프로
그램'이 영아의 애착안정성과 사회·정서적 긍정행동에 미치는 영향. 미

- 래유아교육학회지, 18(1), 305-325.
- 김주현, 박찬욱. (2011). 단동치기십계훈(檀童治基 十戒訓)의 교육관과 유아 교육적 의미. 유아교육연구, 31(2), 233-253.
- 김혜경, 김홍은, 문혁준, 박은혜, 유애열, 임혜영, 장영희, 조혜진. (2005). 효과적인 영아 보육을 위한 지침서. 서울:다움세대.
- 노동은. (1984). 한국영아음악연구. 서울:음악춘추사.
- 노희연. (2014). 어린이집 영아반 하루일과의 의미 탐색 : 0,1세 영아반의 배변 및 기저귀 갈기, 낮잠자기, 간식 및 식사시간을 중심으로. 유아교육학논집, 18(4), 457-478.
- 명현. (2002). ‘아이 어르는 소리’의 음악적 특징 연구. 한국민요학, 11, 49-89.
- 모형오. (2006). 고창 영아음악연구. 중앙대학교 국악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원선. (2014). 전래영아놀이와 연계한 뇌 기반 영아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가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병각. (2000). 우리의 뿌리사상과 그 문화. 서울:학문사.
- 배영희. (2004). 유치원 전통놀이 프로그램의 교육적 의미와 가치.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백창우. (2009). 아기 자람에 따라 불러주는 놀이노래 「달궁달궁」. 서울:한울림어린이.
- 보건복지부. (2015). 2014년 보육통계. www.mw.go.kr.
- 서정범. (1996). 서정범의 어원별곡: 우리말의 뿌리를 찾아서. 서울:앞선책.
- 안명선. (1962). 빛나는 겨레의 열. 서울:성문각.
- 안선희, 김지은. (2010). 영아 보육교사의 자질 및 역할과 전문성에 관한 심층사례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8(3), 87-97.
- 안지애. (2002). 영아기 전래놀이노래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희진. (2008). 한자에 우리 영혼 구겨 넣은 ‘단동십훈’. 한겨레신문 10월 13일자 25면.

- 양지영. (2007). 영아반 미혼초임교사의 역할과 갈등. 세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엄정애. (2001). 영아기 전래놀이노래에 대한 부모의 인식과 적용실태. 유아교육연구, 22(2), 195-203.
- 유안진. (1986). 한국의 전통유아방식. 서울:서울대학교 출판부.
- (1990). 한국 전통사회의 유아교육. 서울:서울대학교 출판부.
- 윤경애. (2003). 엄마, 나는 아직 뱃속이 그리워요. 서울:한언출판사.
- 이경은. (2006). 뇌과학에 기초한 영아기 경험의 중요성에 대한 고찰 및 교육적 시사점.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희. (2012). 영아 애착의 관점에서 본 단동치기십계훈의 의의. 숙명여자대학교 아동연구, 25(1), 33-50.
- 이숙화, 황성하, 남미경. (2012). 어린이집-가정연계 감각활동이 영아의 부모에게 미치는 효과. 한국유아교육학회 정기학술발표 논문집, 36-370.
- 이승현. (2005). 단동십훈과 전통유아교육. 국학이야기. 인터넷 뉴스메이커.
- 이애란. (2014). 단동치기십계훈의 유아교육적 의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용숙, 김영천, 이혁규, 김영미, 조덕주, 조재식. (2011). 교육현장 개선과 함께 하는 실험연구방법 (제5판). 서울:학지사.
- 이원숙. (2005). 가족복지론. 서울:학지사.
- 이은경, 강정원. (2010). 전래놀이노래가 영아와 어머니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아동보육연구, 6(2), 97-116.
- 이행숙, 한유진. (2008). 전통놀이에 나타난 어머니-영아간 신체적 상호작용. 아동학회지, 29(3), 253-272.
- 임소영. (2009). 한국 전래아기놀이 프로그램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소영, 김은주. (2010). 전래아기놀이의 영아교육적 함의. 유아교육연구, 19(2), 175-191.
- 임재택. (2005). 생태유아교육개론. 경기:양서원.
- (2011). 새로 쓰는 육아 이야기 - 한겨레 「베이비트리」.

<http://babytree.hani.co.kr>.

임재해. (2012). 「 한국 전통육아, 왜 잊혀졌는가? 」.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
2012년도 춘계학술대회 - ‘새로운 한국, 한국 전통육아의 지혜를 찾아서’
기조발제 자료.

장은경. (2006). 전통적인 육아음악에 관한 연구: 아이 어르는 소리와 자장가
를 중심으로. 용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진홍. (2008). 단동십훈을 아시나요?. 중아일보 10월 4일자 26면.

조용환. (2008). 질적연구: 방법과 사례. 경기도, 파주:교육과학사.

체인지TV(www.changetv.kr) '한민족 전통육아법 단동십훈' 동영상 10편.

편해문. (2002). 옛 아이들의 노래와 놀이 읽기. 서울:박이정.

(2003). 우리 민속문화에서의 아이들 삶. 생태유아교육연구, 2(1),
41-69.

(2005). 어린이 민속과 놀이문화. 서울:민속원.

황우연. (1988). 천부의 맥. 서울:우리출판사.

Merriam. S. B. (1998). *Qualitative Research and Case Study Application
in Education*. 강윤수, 고상숙, 권오남, 유희찬, 박만구, 방정숙, 이증권,
정인철, 황우형 공역(2007). 정성연구방법론과 사례연구. 서울:교우사.

Wallin. D. J. (2007). *Attachment in Psychotherapy: The Guilford Press*.
김진숙, 이지연, 윤숙경 공역(2010). 애착과 심리치료. 서울:학지사.

Yin. R. L. (2009). *CASE STUDY RESEARCH: Design and Method, 4th
ed*. 신경식, 서아영 공역(2011). 사례연구방법. 서울:한경사.

부 록

<부록 1> 연구 참여 동의서

<부록 2> 참여교사 관찰 일지 예시

<부록 3> 연구자 관찰 일지 예시

<부록 4> 교사 면담 가이드라인 예시



<부록 1> 연구 참여 동의서

연 구 동 의 서 (학부모용)

**연구제목 : 단동십훈 활용에 관한 사례연구
(만 0세 영아반 대상으로)**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성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으로 귀 가정의 영아를 대상으로 단동십훈 활용에 관한 사례연구를 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는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단동십훈을 ○○○○어린이집 별빛반(만0세반)에 재원중인 영아들에게 구체적으로 적응해보고 교사들로 하여금 단동십훈의 효과 및 교수법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연구는 6주에 걸쳐서 적용됩니다. 수집된 모든 자료는 연구와 학술적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수집된 자료의 보관부터 결과의 발표, 활용 등 연구 참여자의 이름 및 신분이 드러날 수 있는 사항들은 모두 가명 처리됩니다.

만약 연구기간동안 어떠한 의문이나 어려운 점이 발생할 경우 귀하의 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4월

한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학과

지도교수 : 조 순 영

연구자 : 전 중 연

위 연구를 허락합니다.

_____서명

<부록 2> 참여교사 관찰 일지 예시

별빛반 : S○○교사
▶ 원아 : 한○○ ▶ 날짜 : 2016년 4월 18일(월요일)
● 오전 (자유놀이시간) 오전시간 단동십훈 중 ‘불아불아’를 불러주며 앉아있는 ○○이의 양어깨를 잡고 몸을 좌우로 흔들며 교사도 같이 좌우로 흔들었다. 교사를 쳐다보는 ○○이의 눈을 마주치며 ‘불아불아’를 반복하여 부르며 동작을 반복하였다. 쳐다보며 미소만 지을 뿐 별다른 반응이 보이지 않아 이번에는 서진이의 어깨를 잡은 손을 떼고 교사 혼자서 ‘불아불아,’‘시상시상’을 부르며 몸을 좌·우로, 앞·뒤로 흔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는 쳐다보고 미소만 지을 뿐 몸을 흔들거나 하지는 않았다.
● 오후 (자유놀이시간) 오후 간식을 먹은 후 기분이 좋은 ○○에게 ‘ 짹짹궁 짹짹궁’을 불러주자 손바닥을 맞부딪치며 웅알이를 한다. 아직까지는 단동십훈 중 ‘짹짹궁’소리에만 반응을 보인다.

<부록 3> 연구자 관찰 일지 예시

연구자 관찰 일지(예시)

* 2016년 4월 20일 (수요일)

* 오전 8시 40분경 (장소:유희실)

한○○, 최○○이, 안○○이가 소꿉놀이영역에서 당직 선생님(1세반)과 있었다 (오전 8시~ 8시 30분 경에 등원 하였다고 함). 한○○이는 아침 이유식을 먹으려고 부스터에 앉아있고, 안○○는 감기에 걸려서 컨디션이 좋지 않아 바운서에 누워 있다. 최○○은 장난감을 가지고 잘 놀고 있다.

한○○에게 아침 이유식을 먹일때,(연구자의 권유로 당직선생님이) ‘도리도리’ 노래를 불러줬는데. 기분이 좋았는지 한○○이가 웃으며 좋아한다(동작은 없었음). 옆에 있던 최○○이도 웃으면서 따라했다(동작을 따라함). 몸상태가 좋지 않은 안○○는 가만히 바라보기만 하고 한○○이는 ‘도리도리’에만 반응을 보이며 웃는다. 최○○이는 ‘잼잼, 곤지곤지, 짹짹’등 잘 따라하며 즐거워했다. 약 2분 정도 놀이가 진행이 되었다.

* 오전 10시 40분경(장소:별빛반 교실)

(이번주에는 시간을 정해 별빛반에 모여서 단동십훈을 해보기로 했었다) (오전 간식시간 후) 안○○이는 바운서에 누워 잠을 자고, 최○○, 한○○, 정○○, J교사, S교사가 음악을 들으면서 순서대로 단동십훈을 시작하였다(하○○는 등원하지 않음). 정○○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J교사 옆에 가만히 앉아있다. 최○○이는 잘 따라 했으며(단동십훈의 동작보다 춤을 추는 동작을 하면서 가끔씩 따라함), 한○○는 처음에는 반응을 보이고 ‘짝짝궁’은 따라하였으나 곧 S교사의 교사의 품에 안겼다. 최○○는 조금더 따라하다 장난감을 찾아서 놀았다. 약 3분정도 진행하였다.

교 사 회 의(2차)

* 참석자 : 연구자, J교사, S교사

2016년 4월 18일(월요일)

1. 단동십훈을 교실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있나요?
2. 단동십훈에 대한 자료나 활동방법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정보를 얻었나요?
3. 단동십훈에 대하여 처음 기대감과 1차 실행 후 지금의 느끼는 점은 어떻게 됩니까?
4. 단동십훈을 실행할 때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5. 단동십훈 1차 실행 후 교실의 모습이나 아이들이 달라진 점이 있나요?
6. 단동십훈 1차 실행 후 긍정적인 부분 또는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 긍정적인 부분
 - 부족한 부분
 - 개선할 부분
7. 단동십훈을 실행하는 중에 원이나 운영자, 또는 동료교사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나요?
 - 도움이 필요할 때 그 도움의 종류
 - 도움을 받으면 효과가 높아질까?
 - 도움이나 지원에 대하여 원, 운영자, 동료교사들의 도움 정도는?
8. 단동십훈 실행후 부정적인 모습도 발견 되었나요?
9. 단동십훈 2차 실행 때는 어떤 계획과 방법으로 진행할 예정인가요?

ABSTRACT

Case Study on Utilization of Dandongsibhun(檀童十訓)

—Focus on infant class under 1 year—

Jeon, jong-yeon

Major in Childhood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Hansung University

This research aimed at investigating infants class under 1 year teachers' awareness on dandongsibhun, teachers' cognitive change, infants' reaction to utilization of dandongsibhun, and improvement point of utilization process of dandongsibhun through case study of dandongsibhun utilization of the relevant class.

As the research target, 5 infants under 1 year of home child care center of Nowon-gu, Seoul, and class teachers J and S participated in the research.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through researcher's participant observation, participant teacher in-depth interview, and participant teacher's observation diary, etc. during 6 weeks from April 4 to May 13, 2016. For the collected data, the researcher utilized analytic induction, and went through participants' review, experts and colleague researcher's verification to raise reliability.

The research result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he advantage of dandongsibhun that the participant teacher perceived was, first, it helps growth development of infants by providing them with physical activity proper for their development. Ten motions of dandongsibhun include

various kinetic factors such as gross motor skill, fine motor skill, sense of balance, and coordination capability, etc., which are helpful for cognitive development, communication ability, etc. Second, dandongsibhun is a play that induces pleasure of motion centered play, imitation behavior that follows teacher's motion, and physical contact between teacher–infant, which forms reliability between infants and teachers, positively influencing infants to well adapt to day care center. Third, dandongsibhun is a play by itself, however it makes the play more pleasant by inducing various extended activities. Also, it provides an environment to allow the infants to rest more comfortably along with song when lulling them to sleep or soothing them. Particularly, dandongsibhun song is meaningful since it contains a significance to wish the child grow healthy and rightly.

Infants' reaction to dandongsibhun varied along with each child. The infants who prepared for step showed interest in 'seomma seomma' to strengthen their legs and learn sense of balance. Rather than the infants who had 10 months' experience in day care center, new infants showed more interest and followed well. The infants who had experience in day care center showed more interest in the song that the teacher sang before or play. Also, they learned the motion with teacher's physical help more quickly rather than the motion that required visual mimetic activity, in some motion, utilization of children's song was more effective than dandongsibhun.

The points to consider in respect of dandongsibhun utilization were, first, repetitive and various play should be utilized in the infants' daily life. Second, the characteristics and situation of infants should be understood and applied. Third, it is necessary to raise efficiency through association with the family and form reliability between teachers and parents.

Based on the above research results, dandongsibhun was determined to

be a useful play method and teaching method in relation between infants – teachers, besides infants–parents. Teachers of infants under 1 year can be helpful for the infants to stably adapt to day care center by better understanding infants and forming reliability by utilizing dandongsibhun. In respect of utilizing dandongsibhun, teachers' continuous efforts and repetitive application is required to properly understand and apply the characteristic and situation of infants, also, association with home is very important. Also, support plans for education support and training, etc. are necessary for teachers to apply and utilize dandongsibhun.



【Key words】 dandongsibhun, traditional baby play, traditional infant care, ecological childhood education, traditional play